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석사학위논문

마키아벨리와 ‘갈등’의 정치학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 치 학 과

박 혜 진

마키아벨리와 ‘갈등’의 정치학

지도교수 유 홍 립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 치 학 과

박 혜 진

박혜진의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7월

위 원 장 김 세 균 (인)

부위원장 유 홍 립 (인)

위 원 김 응 찬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갈등을 바라보는 마키아벨리의 시각을 통해 한국 사회의 편향된 갈등론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그것이 현대의 민주 정치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갈등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 및 재구성 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화합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던 상황에서 갈등을 정치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결과임을 인지하였다. 게다가 그는 갈등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에 잘 맞는 제도를 창출하게 하고, 시민적 견제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주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정치적 기제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갈등을 논함에 있어서, ‘리더’ 역시 갈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치 행위자라는 점, 다양한 갈등 양상을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갈등은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체제를 개혁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의 갈등 양상을 무패의 틀을 차용하여 ‘적대’ 차원의 갈등과 ‘경쟁’ 차원의 갈등으로 구분하고, 그가 효용성을 주장한 갈등은 ‘경쟁’ 차원의 갈등임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경쟁’ 차원의 갈등은 ‘리더를 포함하는 세 정치적 주체’와 그들간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견제력’으로 구성된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경쟁’ 차원의 갈등이 체제에 끊임 없이 찾아오는 제도와 구성원들의 부패라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혁신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저작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한 그의 독창적인 생각은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의 대표 저작인 『로마사 논고』, 『군주론』, 그리고 『피렌체사』에서 일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기의 논의를 토대로 크게 갈등 논의에 관한 두 가지의 전환의 필요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나는 갈등에 관한 담론의 전환이다. 민주정치 내 갈등의 불가피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갈등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논의 역시 행정학 또는 정책학의 분야에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갈등이 가져다 주는 결과적 손실에 집중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만 논의가 한정될 경우, 민주정치에서 갈등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갈등을 바라본 것처럼, 갈등은 민주정치가 잘 유지되고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위기를 혁신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역시 갈등을 부정적이고 지양해야 할 것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선용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양상 자체에 대한 전환이다. 70-80년대 국가 주도의 개발 독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합의는 공공선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정치는 선호 집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선호 집약에 대한 중시는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 보다는 소수의 인물에 의한 ‘대표’의 중시로 이어지고, 이는 곧 파벌과 파당을 양산한다. 편가르기 식 정치가 난무하고 갈등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 제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 분열을 가져오는 상황이,

오늘날의 정치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적대적인 갈등을 어떻게 경쟁적인 차원의 갈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 모색이 필요하다. 마키아벨리가 궁극적으로 중시하는 ‘저변이 넓은 정체’는 현 상황에 유효한 통찰을 제시한다. 즉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그들 사이의 견제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그로 인한 갈등에 관한 인식의 전환은 적대적으로 전개되는 갈등의 양상을 경쟁적인 차원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마키아벨리, 갈등, 정치참여, 공화정체, 인민, 민주정치

학 번: 2010-20079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2. 기존 연구 검토	5
3.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1
II. 마키아벨리의 정치관.....	14
1. 정체의 순환	14
2. 정치의 세속화와 역사적 실효성.....	18
3. 국가(stato)의 수립과 유지.....	21
III. 갈등의 해석학	33
1. 갈등의 상반된 양상과 기존의 구분	34
2. 갈등의 두 차원	42
3. 갈등의 구성	51
(1) 갈등의 세 주체.....	52
(2) 주체들간의 관계: 견제.....	57
IV. 정체의 순환과 갈등의 역할.....	61
1. 갈등과 제도 창출의 선순환	61
2. 정치적 주체성의 유지.....	66
3. 부패와 혁신	72
(1) 부패와 위기.....	73
(2) 혁신과정과 갈등의 역할.....	79
V. 결론: 현대적 함의.....	93
참고문헌	97
Abstract.....	106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민주정치에서 갈등은 회피하거나 해소 가능한 것인가? 근대 이후의 민주정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민주주의적 전통 사이의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며, 이러한 특성 상 민주정치와 갈등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자유주의적 전통은 법의 지배, 중립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한 갈등의 해결을 중시한다. 이와는 달리 민주주의적 전통은 평등과 참여를 통한 인민주권의 실현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따라서 정치 현실에서 갈등을 불가피하고 심지어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는 다시 절차적 합리성과 그를 통한 이성적 합의를 강조하는 합의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모델과 인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그를 통해 파생되는 갈등을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 모델 사이의 긴장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현실에서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다. 타임지가 2011 년 “The Protester” 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할 만큼¹ 정치 지형 내 갈등은 전세계적 현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된 이래로, 사회의 다양성 정도에 맞물려 앞으로 갈등은 더 첨예화될 것이 예상되기에, 갈등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¹ “Person of the Year” . <Time>. 2011. 12. 14.

그러나 정치 지형 내 갈등의 중요성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논의는 다분히 편향되어 있다. 민주정치 내 갈등의 불가피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어느 정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² 우리 사회에서 갈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갈등에 관한 기능적인 관리기법이나 제도화 또는 정책의 문제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갈등에 대한 논의는 행정학 또는 정책학의 분야에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나 법을 통해 그것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가 주를 이룬다(이병량·김서용·전영평 2008, 52-53; 정건화 2008, 12).³ 최근에는 경제학적인 접근으로 갈등을 다루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² 마르크스(Marx), 짐멜(Simmel), 베버(Weber)등은 사회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생활에 있어서 필연적인 점에 주목하여 갈등을 통해 사회변동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들에게서 일정한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는 랄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 1988)의 변증법적 갈등이론과 루이스 코저(Lewis A. Coser 1982)의 갈등적 기능주의 등이 갈등과 사회변동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³ 한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1984년 한국사회학회가 발간한 『한국사회학』의 특집호 “사회갈등과 사회발전”에 실린 논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린 논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원, 지역, 노사간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조망하는 개념 소개적이거나 서설적인 성격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심영희(1984), “사회갈등과 사회통제-이론적 조망”, 이효선(1984), “학원의 갈등-그 성격과 대응”, 문석남(1984), “지역격차와 갈등에 관한 한 연구-영·호남 두 지역을 중심으로”, 김성국(1984), “노사갈등의 구조와 역사적 전개”, 김일철(1984), “사회발전과 갈등” 등이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갈등에 관한 논의들은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갈등을 다루거나 사회갈등의 해결이나 관리를 위한 대안 모색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상환(1997),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갈등의 본질”, 박길성(2003), “외환위기의 사회적 비용: 삶의 질, 사회갈등, 신뢰구조”, 이영희(2004), “민주화와 사회 갈등: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이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정책이나 제도를 통한 갈등의 해결 방안 등에 논의가 치중되고 있다(김영중 외 1999; 김영평 2002; 박상필 2000; 박천오·서우선 2004; 배응환 2005; 변상정 2004; 서문기 2004; 안성민 2000; 유해운 외 2001; 주재복 2001; 최연홍·오영민 2004 등). 정건화 역시 사회과학 분야의 사회갈등 논의를 분석한 그의 논문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경향이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갈등관리 기법과 제도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건화. 2008.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동향과 전망』 71, 11-50.

따라 점차 시장 영역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갈등이 가져다 주는 손실에 갈등 연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경제적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취업난과 경제난 등의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시장 경쟁의 원리나 성장지상주의, 효율성 등의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은 통제하거나 해소시켜야 하는 대상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갈등은 성장을 위한 통합을 저해하고 효율성에 피해를 입히며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해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에 대한 이러한 논의의 경향은 사회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⁴ 그러나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그 규모도 확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갈등이 가져다 주는 결과적 손실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만 논의가 한정될 경우, 정치적 장에서 갈등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마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있다. 갈등은 정치 영역에서 그것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으며, 민주정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거나 사회 변화를 추동 할 수 있는 요소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현상적인 접근 이전에 좀 더 근본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한국 사회의 편향된 갈등론에 유효한 통찰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잔혹한 마키아벨리’라고 평한 것처럼, 오늘날 마키아벨리가

⁴사회갈등에 대한 보도를 연구한 김동규는 한국에서 사회 갈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대체로 기능론적 입장에서 있으며 사회갈등을 통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언론의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규. 2000, 「사회갈등 보도의 바람직한 방향 찾기」, 『한국언론학회보』 45:1. 예를 들어, <헤럴드 경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의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의 2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으며 한국이 각종 사회갈등으로 인해 가지는 손실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갈등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갈등이 야기하는 경제적 손실을 부각시킴으로써 갈등이 정치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한 논의를 퇴색시킬 수 있다. <헤럴드 경제> 2009. 6. 24.

정치사에서 잔혹함과 교활함, 권모술수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⁵ 하지만 동시에 그의 논의는 근대정치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이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마키아벨리가 그가 살던 시기에 당연히 받아들여지던 도덕 전체에 통찰력 있는 비판을 가한 독창적 인물이었기 때문이다.⁶ 마키아벨리는 당대 화합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가부장적 공화주의 사상을 반박하며, 체제 내 갈등의 정치적 효능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고대 정치철학은 물론 근대 초기의 다른 정치이론들과도 대비되는 마키아벨리 사상의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그가 로마의 자유와 강성함의 원동력이었다고 주장한 갈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갈등을 바라보는 좀 더 긍정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는 데 적절한 기여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정치 내에서의 갈등의 불가피성과 갈등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갈등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 및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키아벨리의 저작에서

⁵ 이러한 시각으로 마키아벨리를 바라보는 대표적 학자로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가 있다.

⁶ 스킨너(Skinner)는 ‘편협하고 가변적인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 과거를 찬미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재발견해 이를 현재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마키아벨리가 당시 지배적이었던 기독교 사상 및 고전적인 도덕론자들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엮는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정치를 바라본 것에 의의를 부여한다. 그는 마키아벨리를 ‘인문주의 정치사상의 신고전주의적 형식의 대표자’라고 여기며 당대의 인문주의적 가정에 대한 그의 논쟁적이고 풍자적인 반응은 그가 지닌 정치 비전의 가장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Skinner, 2010, 강정인·김현아 역, 『마키아벨리의 네 얼굴-군주론 너머 진짜 마키아벨리를 만나다』 서울: 한겨레출판. 박상섭 역시 마키아벨리의 작업이 ‘당시까지 전통으로 확립되어 온 서유럽의 주류 정치이론 전부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대단히 야심적인 것(202)’임을 지적하는데 여기에는 ‘플라톤에서 세네카 또는 키케로에 이르는 고전 철학의 전통, 서양의 중세 전체를 지배한 기독교 사상 그리고 공화제적 자유와 공동선의 이상과 기독교 사상의 조화를 추구하던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의 인문주의 사상’이 모두 포함된다. 박상섭, 2002, 『국가와 폭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보여지는 행위자들간의 다양한 행동 양상을 '갈등'이라는 개념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갈등에 관한 그의 논의가 각 저작 내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온 한계를 지적하며, 갈등 논의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재구성을 시도한다. 또한 체제의 혁신 또는 건국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갈등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 과정에서 마키아벨리가 갈등의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기존 연구 검토

스키너는 마키아벨리의 논의가 “모든 공화국에는 두 개의 대립하는 파벌, 즉 평민 파벌과 부자 파벌이 있다”라는 공리에서 시작한다고 여겼다.⁷ 그리고 이 구절을 근거로 마키아벨리의 갈등에 관한 많은 논의에서 갈등은 기본적으로 귀족과 인민 사이의 권력과 이익을 둘러싼 계급간 대립으로 간주된다. 그가 일반 시민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용어들은 보통 *il popolo, uomini popolari, ignobili* 등이었는데 반해 귀족은 따로 *i grandi, uomini grandi, nobili, la nobilità, ottimati, potenti* 등의 용어로 구분 짓고 있다. 이 용어들은 모두 계급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모두 평민 또는 귀족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키아벨리가 상정하고 있는 대립이 주로 귀족과 평민 간의 계급대립이라는 것이다.⁸

⁷ Skinner, 2010, 강정인·김현아 역, 『마키아벨리의 네 얼굴-군주론 너머 진짜 마키아벨리를 만나다』 서울: 한겨레출판, 126.

⁸ 진원숙, 1995, “마키아벨리의 계급대립론,” 『계명사학회』 6, 141.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과 달리, 마키아벨리는 정치 내 갈등의 효용성을 주장하였지만, 마키아벨리가 모든 종류의 갈등을 다 긍정적으로 여긴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갈등을 다루는 연구들은 그가 갈등을 어떤 것으로 바라봤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마키아벨리가 갈등의 상반된 양상을 가르는 축을 무엇으로 여겼는지를 중요한 논의의 주제로 삼아왔다. 즉 긍정적 양상과 부정적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때 두 양상을 가르는 축으로는 수단의 비합법성과 파당이 언급된다. 여기서 파당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공공선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또는 자신들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적 수단이 아닌 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 생겨난다.

귀족과 인민간의 계급간 대립이라는 갈등에 대한 정의와 수단의 비합법성과 파당을 그 기준으로 하는 갈등 양상의 구분 하에서, 갈등은 마키아벨리의 각 저작들에 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다. 『로마사논고』를 통해서서는 혼합정체에서 갈등이 어떻게 강력한 공화국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는지에 관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들이 많으며, 『군주론』을 통해서서는 부패한 체제에서 국가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룬다. 『피렌체사』와 관련한 연구들의 경우 갈등의 부정적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로마의 변영을 결과한 동일한 갈등이 왜 피렌체에서는 체제의 몰락을 가져왔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갈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리더에 관한 논의와 갈등에 관한 논의가 별개의 것으로 치부되는 데에서 오는 문제이다. 갈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갈등을 귀족과 인민간의 계급대립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갈등 상황에 집중한다. 하지만 이런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보면 귀족과 인민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주체인 리더가 갈등 논의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마키아벨리가 리더를 귀족과 인민 두 계급 중 하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지했다 하더라도,⁹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리더가 자신이 속한 계급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더라도, 리더는 그 위치로부터 부여되는 책임과 역할을 가지게 된다. 리더는 한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체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리더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자신이 속했던 계급의 관점이 아닌 리더의 관점과 위치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리더를 귀족이나 인민과 같이 고유의 독특한 역할과 특성을 가지는 정치적 주체로 상정하면, 갈등 상황은 귀족과 인민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과 리더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체제 내의 갈등을 귀족과 인민의 대립으로만 정의하는 경우, 갈등 논의에서 리더가 차지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있으며, 반대로 리더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는 갈등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평가절하될 수 있다. 체제의 개혁과 혁신 과정에서 갈등의 역할에 관한 논의의 부재가 그 대표적 예이다. 마키아벨리가 사회 체도와 사회 구성원들이 완전히 부패해버린 체제의 혁신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 또는 일인에 의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¹⁰ 그러나 이를 혁신과정이 온전히 일인의 역량에 의해서만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장시키는 것에는

⁹ 『군주론』 9장에서 군주가 어떻게 탄생하는 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마키아벨리는 귀족이 "인민의 압력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신들 중의 어느 한 사람을 지원하고 추대하여 지배자로 만든 연후에 그의 보호 하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우와 인민이 "귀족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자신들 중의 한 사람을 지원하고 추대하여 지배자로 옹립한 연후에 그의 권위를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¹⁰ D I. 17; I. 18; I. 55.

무리가 있다.¹¹ 그럼에도 기존의 갈등 연구들은 리더를 갈등 논의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혁신 과정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마키아벨리가 인지하고 있던 갈등의 역할을 분석해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 한계점은 ‘갈등’이라는 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사실 『로마사 논고』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갈등’이라는 표현에 가장 적합한 단어 ‘conflitto’는 단 두 차례, 그것도 전쟁과 관련해서만 사용되었으며,¹²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표현하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하다. ‘소요(tumult)’나 ‘우연한 사건(accidente)’ 등에서부터 ‘계급갈등’, ‘불화’, ‘내분’, ‘대립’ 등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의미하는 표현은 저자마다 다양하다. 영어식 표현 역시 저자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Skinner 는 ‘disunion’, Viroli 는 ‘conflict’, Bock 는 ‘civil discord’ 를 각기 ‘갈등’ 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¹³ ‘갈등’ 이 이처럼 여러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이유는, 그의 ‘갈등 개념’이 한 단어나 하나의

¹¹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대표적 학자로 김경희를 들 수 있다. 그는 『군주론』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해석들이 대부분 영웅으로서의 군주에 초점을 맞춘 것을 지적하며, 타인에 의해 ‘구성’되는 군주의 권력에 집중한다. 그는 군주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치의 주인임을 볼 줄 아는 것을 그의 역량으로 정의하고, 따라서 『군주론』을 ‘독존’이 아닌 ‘공존’의 정치로 해석한다. 김경희, 2011, “‘독존’에서 ‘공존’으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해석에 대한 일고찰,” 『한국정치연구』 20:1, 47-68. 박준혁 역시 이와 관련하여 로마공화국의 몰락원인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분석에서 제왕적 권력과는 구별되는 신중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볼 수 있으며, 이 신중한 리더십이 마키아벨리가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개혁의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박준혁, 2003, “갈등, 혼합정체, 그리고 리더십: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9, 171-194.

¹² 박준혁, 2003, “갈등, 혼합정체, 그리고 리더십: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9, 173.

¹³ G. Bock, Q. Skinner and M. Viroli, 1990, *Machiavelli and Republican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아이디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고 있으며, 마키아벨리 자신도 이러한 양상을 ‘discordie’, ‘divisione’, ‘disunione’ 등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족과 평민의 계급 대립을 넘어서서 각 저작들에 등장하는 여러 상황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갈등의 틀을 찾고 그것을 분류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문제점은 갈등의 부정적 양상을 가르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갈등 연구에서는 갈등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느냐의 여부, 또는 갈등이 파당적인가의 여부가 갈등의 두 양상-공정적인가 부정적인가-을 가르는 축이었다. 여기서 파당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마키아벨리의 여러 저작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구성원들이 공익 또는 공공선을 지향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야망 충족을 위한 사익을 지향하는 것이다. 갈등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거나 파당성을 띠게 되면, 갈등은 결국 체제를 부패 상황으로 몰고가 위기에 빠트린다는 것이 갈등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행위의 의도보다는 그 실효성을 놓고 옳고 그름, 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키아벨리의 정치관에 있어서, 행위자의 사익 추구 여부는 정치적 행위를 판단하는 유효한 기준이 되기 힘들다. 사익을 추구했는지 공익을 추구했는지, 그 구분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파당은 부패한 국가의 전유물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파당이 부패를 결과한 것인지 부패한 체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부정적인 파당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인지가 모호한 문제로 남게 된다. 또한 파당을 공적 수단이 아닌 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왜 사람들이 사적 수단에 의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 왜 누군가는 비합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누군가는 합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가 등의 의문에 대해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기존의 구분을 보완하여 상반된 갈등 양상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기존의 마키아벨리의 갈등에 대한 논의가 오늘날 마키아벨리를 바라보는 논의의 주된 흐름과 적절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키아벨리는 그 저작들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되어왔다. 초반에는 『로마사 논고』에서 보여지는 공화주의적 이상과 『군주론』에서 보여지는 현실주의적 면모가 상반된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의 모순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그를 공화주의자로 여기며 그의 사상을 일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다.¹⁴ 하지만 갈등에서 리더를 배제하는 기존의 갈등 논의는 마키아벨리 사상의 일관성을 지지하는 현재의 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갈등을 이러한 시각으로

¹⁴ 마키아벨리의 저작을 해석하려는 기존의 시도들은 『로마사 논고』와 『군주론』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군주론』에 더 무게를 실는 해석으로 대표적으로 헤겔(Hegel)과 그람시(Gramsci) 등이 있다. 이들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의 의도가 봉건적 무질서를 극복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국의 성립에 있었다고 주장한다(Hegel 1986; Gramsci 1986). 바론(Hans Baron)이나 길버트(Felix Gilbert)의 경우 마키아벨리를 『군주론』의 현실주의에서 인문주의적 공화주의자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Baron 1988; Gilbert 1977). 그들은 『군주론』의 현실주의와 『로마사 논고』의 정치적 이상주의 사이의 대비는 마키아벨리의 사상 속의 긴장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지적 발전의 결과로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Gilbert 1977, 133; 박상섭 재인용 2002, 109). 세 번째는 마키아벨리를 공화주의자로 보며 『군주론』을 하나의 일탈 또는 그의 진정한 사상이 담겨 있지 않은 저술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디츠(Dietz)는 이들의 입장을 ‘약한 공화주의적(weak republican)’ 입장과 ‘강한 공화주의적(strong republican)’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Dietz 1986).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를 기본적으로 공화주의자로 보기는 하지만 『군주론』은 그 나름의 의미와 지위,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는 해석이다. 포콕(Pocock)은 『군주론』이 피렌체의 부패 상황에서 당시의 핵심이슈인 체제의 ‘혁신’에 대해 다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자로서의 신군주의 뛰어난 역량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군주론』의 핵심 메시지라고 밝힌다(Pocock 1975, 160) 잣소(Sasso)와 뮌클러(Münkler) 역시 『군주론』의 핵심 주제가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그것을 제어하는 신군주의 뛰어난 역량임을 언급한다(김경희 2011, 57; Sasso 1965, 160-162; Münkler 1994, 106).

바라볼 경우, 공화주의자로서 줄곧 인민의 정치 참여와 그 긍정적 효과를 중요시하는 마키아벨리가, 혁신과 개혁 과정에서는 돌연 리더의 역할과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듯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기존 논의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의 여러 저작들에 등장하는 다양한 정치적 상황들을 ‘갈등’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각 저작들에서 일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갈등’에 대한 종합적 해석 및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중시한 공동체의 자유와 지속성이 갈등과 어떻게 양립가능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목표들을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달성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의 저작들에 대한 문헌 분석이다.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저작은 『군주론』, 『로마사 논고』, 『피렌체사』이며 ‘갈등’이라는 핵심 개념의 의미를 문헌 내에서 분석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통하여 세 저작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갈등’ 개념을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본문과 각주에서 사용되는 저작의 원제와 약칭, 인용된 영역본 및 국역본 저작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P=Il Principe (강정인·김경희 역, 『군주론』, 서울: 까치, 2008).

이하 숫자는 장. 예를 들어 P 7은 『군주론』 7장.

D=*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 (강정인·안선재 역, 『로마사 논고』, 파주: 한길사, 2003). 이하 숫자는 권과 장. 예를 들어 D II. 3은 『로마사 논고』 2권 3장.

IF=*Istorie Fiorentine* (A. Gilbert. *Machiavelli: The Chief Works and Others*. Vol. 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9). 이하 숫자는 권과 장. 예를 들어 IF II. 1은 『피렌체사』 2권 1장.¹⁵

더불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마키아벨리 저작을 참고로 한다.

Arte della Guerra (이영남 역, 『마키아벨리의 전술론』, 서울: 스카이, 2011).

본 논문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적 일관성을 지지할 수 있는 그의 ‘갈등’ 논의에 대한 재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각 저작 별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그의 대표 저작인 『로마사 논고』, 『군주론』, 그리고 『피렌체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가 제시한 ‘갈등’이라는 개념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는 일부 글이나 요소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가 워낙 다양한 저작과, 편지, 기타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이를 모순적이거나 대립적인 형태로 제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2장에서는 그의 갈등 논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큰 틀에

¹⁵ 마키아벨리의 『피렌체사』의 경우 국내 번역본이 없는 관계로 이탈리아어 원본에 가장 충실한 번역으로 알려진 길버트(Allan Gilbert)의 영역본을 참고했다.

서 마키아벨리의 정치관에 대해 다룬다. 그는 정체를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으로 바라보았으며, 정치의 역사적 실효성을 중시하며 정치의 세속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저작들을 관통하는 마키아벨리의 지속적인 관심사는 바로 국가(stato)의 수립과 유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갈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갈등의 불가피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내 갈등의 존재 의미를 살펴보고, 마키아벨리의 저작 내에 등장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에 대한 체계적 구분이 이루어진다. 갈등의 상반된 양상을 구분하는 기존의 구분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 지 밝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무폐의 틀을 차용하여 갈등을 ‘경쟁’ 과 ‘적대’ 의 차원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갈등의 주체와 그들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 마키아벨리의 갈등을 재구성한다. 4장에서는 실제 정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마키아벨리가 국가의 수립과 유지에서 갈등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해야 한다고 여겼는지, 갈등의 역할에 대해 저작 내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5장 결론에서는 마키아벨리 갈등론의 의의를 평가하고 갈등에 대한 그의 시각이 현대 사회 민주정치의 위기 또는 갈등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 어떤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지 그 함의를 정리할 것이다.

II. 마키아벨리의 정치관

갈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넓은 맥락에서 마키아벨리의 정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그의 갈등 논의가 왜 독창적이며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동시대에 또는 역사적으로 지배적이었던 필연적 정체순환론에 대한 수정 및 역사적 실효성의 강조는 그가 갈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국가의 수립과 유지', 그리고 '갈등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저작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문제의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정체의 순환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체-군주정, 귀족정, 민주정과 같은 단순정체뿐만 아니라 공화정체도-가 필연적인 순환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러한 정치 체제의 순환에 대한 주장은 마키아벨리의 독창적 주장은 아니며, 정치체제의 변동 및 순환에 대한 그의 논의가 폴리비우스의 『역사』 제 6 권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는 입장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¹⁶ 하지만

¹⁶ Donald R. Kelly, 1988, "The Theory of Histor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Renaissance Philosophy*, ed. Charles B. Schmitt and Quentin Skinn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746-761; J. G. A. Pocock, 1975, *The Machiavellian Moment: Florentine Political Thought and the Atlantic Tra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83-218.

폴리비우스가 원시 군주정, 왕정, 참주정, 귀족정, 과두정, 민주정, 중우정, 그리고 다시 원시 군주정으로 되돌아가는 정체순환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¹⁷, 마키아벨리는 거시적인 순환보다는 짧게 반복되는 변화에 더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로마사 논고』에서 정체변동을 의미하는 순환(cerchio)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한 군데뿐인데 반해,¹⁸ 체제의 변동과 관련한 부분에서 그는 공화정에서 군주정 또는 참주정으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짧게 반복되는 변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좋은 정부의) 각각은 그것과 연관된 것(나쁜 정부 형태)과 너무 유사해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쉽게 변형된다. 곧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쉽게 변하고, 귀족정에서 과두정으로의 이행은 손쉬우며, 민주정은 어렵지 않게 무정부상태로 변질된다(D I. 2).

위의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키아벨리의 체제 변동은 폴리비우스의 그것처럼 일방향적이고 큰 순환 내에서의 흐름이라기 보다는 짧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쌍방향적 변동이다. 이렇게 짧게 반복되는 변화 현상의 사례는 『로마사 논고』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²⁰

¹⁷ Polybius, *Histories*, VI. 5-9.

¹⁸ D I. 2.

¹⁹ 박준혁, 2003, “갈등, 혼합정체, 그리고 리더십: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9, 176.

²⁰ I.2.29 아테네에서 민중정부가 참주정으로 변했다가 다시 민중정부로 돌아온 사건, I.45.2 유사 참주정인 로마 10인회의 붕괴 이후 공화정의 부활, I.16.7 귀족들의 일반적 성향이 공화정에서 참주정으로 변화, I.17.4 시라쿠스에서 디온과 티몰레온이 죽은 뒤 참주정에서 공화정을 거쳐 전제정으로의 변화, I.17.13 테베에서 에파미몬다스가 죽은 뒤 참주정에서 공화정으로 그리고 다시 참주정으로, III.3.6 메디치가문의 복귀로 인해 공화정에서 유사 참주정으로의 변화 등이 있다. 박준혁, “갈등, 혼합정체, 그리고 리더십,” p. 176.

그의 체제 변동과 관련된 서술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순환과정을 ‘자연’ 적이 아닌 ‘우연’ 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 있다. 즉 정치변동의 과정과 순환,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형성된 혼합정체가 자연이라는 선형적이고 초인간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의 의지나 본성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폴리비우스가 로마공화국이 혼합정체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데 반해,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과정을 표현함에 있어 “우연(caso)”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²¹

정치체제의 변동을 짧고 반복적이며, 우연적인 것으로 보는 마키아벨리 시각의 중요한 점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가 순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키아벨리는 로마공화국이 혼합정체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로마 원로원과 민중들의 “분열(disunione)”에서 기인하는 “우연한 사건들(accident)”로 설명하고 있다(D I 2).

로마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라를 조직할 수 있는 리쿠르고스와 같은 인물을 처음부터 갖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민과 원로원간의 불화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 결과 입법자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D I. 2).

로마의 최초 입법자가 (혼합정체가 아닌) 결함이 있는 법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필연적 또는 자연적으로 타락한 형태의 정체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않았던 정치 주체들이 빚어 낸 여러 사건을 통해 혼합정체를 만들 수 있었다.

²¹ Polybius, *Histories*, VI. 4; D I. 2.

폴리비우스와 같이 순환과정을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되풀이 과정으로 전제할 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 이미 시작된 순환과정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시각 하에서는 좋은 정체도 참주정이나 과두정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즉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 정체에는 얼마든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우연한 사건과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우연한 사건들을 다룰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이나 제도적 장치가 정체에 필요하게 된다.²²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동태적 정치관에 따른 정체 순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 역량에 의한 지속적인 혁신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혁신을 통한다면 정체의 유지와 발전이 가능하다. 마키아벨리가 이미 부패가 만연한 피렌체에서도 희망을 발견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면 로마공화국과 같은 혼합정체도 궁극적으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포르투나의 특성에 맞서는 인간의 노력과 비르투에 큰 강조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²³

²² 포콕 역시 마키아벨리의 '우연'이 의미하는 바를 인간의 의지적 행동이 순환과정 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Pocock, *Machiavellian Moment*, 189-190). 『로마사 논고』에 등장하는, 인간의 의지적 행동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며 순환과정에 영향을 준 사례로는, I.39.13 피렌체 10인위원회의 부활 및 공화국에서 집정관 제도의 부활과 관련된 법률제정, I.46.2 로마공화국 민중들의 권리와 자유의 회복, I.58.36 잘 조직된 민중은 법률을 통해 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주장, III.16.10 무질서 이후 로마공화국의 시민들은 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주장, III.28.14 독재관의 힘을 통해 법률의 집행이 다시 원활해 졌다는 주장, 등이 있다.

²³ 포르투나(fortuna)와 비르투(virtù)는 마키아벨리의 정치관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용어이다. 라틴어 virtus에서 유래한 virtù를 마키아벨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역량, 능력, 기술, 활력, 힘, 기백, 용기, 용감함 등을 나타낸다. 포르투나 역시 마키아벨리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으로써,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의미로

포르투나의 악의는 [리치가와 알비찌가]의 야망을 제어하고, 파벌을 만들어내는 제도를 제거하며, 진정으로 자유롭고 법을 준수하는 삶에 적합한 제도들을 채택하는 신중함²⁴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IF III. 5).

2. 정치의 세속화와 역사적 실효성

정체의 순환에 대한 그의 생각과 더불어 마키아벨리 정치관의 독특한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당시 정치 또는 군주에 대한 도덕적 조언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치현상을 윤리나 도덕, 종교로부터 독립시켜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현실주의적 정치관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정치학의

구별된다. 이는 비인간적인 힘, 운, 호의 또는 도움, 조건(들), 상황, 성공과 실패이다. 마키아벨리는 포르투나와 비르투의 대비를 『군주론』에서 지배자가 되는 방법 또는 국가를 세우는 방법을 논하는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 포르투나와 비르투의 대비는 마키아벨리의 여러 저작에서 두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포르투나야말로 마키아벨리가 중시하는 인간의 자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세 기독교 사상 하에서 포르투나가 신의 섭리의 대행자로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다면, 마키아벨리는 포르투나를 비르투와 대치시킴에 있어서 운명을 통제하고 다루는 인간의 비르투를 중시한다. 마키아벨리에게 포르투나는 그의 사상 전반을 꿰뚫고 있는 인간 현실에 대한 비전, 정치행위자의 남성성 및 자율성, 문명의 성과를 보존하고자 투쟁하는 인간들에 대한 비전이며,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에게 이 투쟁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한다. Pitkin, 1984, *Frotune is a woman*,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69.

²⁴ 포르투나와 비르투와의 투쟁에서 마키아벨리가 하나의 대비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중함'이다. 『군주론』 25장은 인간이 포르투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부분이다. 여기서 포르투나는 인간사에 변덕스러운 변화를 줄 수 있는 '범람하는 강'으로 비유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운명의 범람은 통제될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는데, 이는 "적절한 역량에 의해서 제방을 쌓"는 등의 '신중함' 행동에 의해 가능하다.

기본문제이기도 한 폭력과 권력의 문제가 당대의 전통적 방식의 정치이론에서 다루이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이를 정치적 담론의 중심문제로 부각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논의는 탈도덕적 권모술수의 이론가라는 그에 대한 세속적 평가와 적절히 짝을 이루며 오늘날 ‘마키아벨리안’이라는 이미지 생성에 큰 기여를 한다. 물론 그가 정치와 도덕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치부한 것은 아니다. 그도 군주의 일관적인 도덕적 처신을 “가장 칭송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P 15)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덕목들이 군주가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견해는 전적으로 거부한다. 이는 그가 정치를 세속적인 것으로 보며, 정치행위의 평가 기준을 역사적 실효성(historical efficacy)에 두었기 때문이다. 즉 정치행위의 옳고 그름 또는 좋음과 나쁨의 평가 기준은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행위는 포르투나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행위자의 비르투의 문제이며, 그 역량을 통해 시민들은 삶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군주가 신의를 지키며 기만책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칭송 받을 만한 일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따르면 우리 시대에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은 신의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책을 써서 인간을 혼란시키는 데에 능숙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맞서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P 18).

위의 내용에서 승리는 곧 국가의 존속을 의미하며, 그 반대는 전쟁에서의 패배 또는 국가의 파멸을 의미한다. 마키아벨리는 신의를 지키는 것보다는 국가를 존속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비록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오히려 칭송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정치는 그것의 실효성으로 평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킨너는 이를 ‘새로운 도덕’ 이라고 명명하는데, 그는 마키아벨리의 주된 관심사가 통치자에게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이며, 그들이 악덕으로 악명을 떨치게 되는 것은 단지 근본적인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불가피한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근본적인 책무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의 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가능하다면 악덕을 피하려고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도덕적 잣대로 스스로를 판단하며 지나친 고민을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²⁵

이러한 현실주의적 정치관은 ‘갈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갈등은 정치 현상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갈등은 인간의 정념과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그는 인간의 이러한 본성적 측면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 역시 정치의 불가피한 측면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체제 내 갈등의 정치적 효능을 주장하였다. 로마의 좋은 법률과 제도가 모두 많은 이들이 부정적으로 치부해 버렸던 대립과 불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르네상스기의 지배적 정치사상이었던,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인문주의와는 정반대 주장인, 그의 갈등의 효용성에 대한 주장은

²⁵ Skinner, 2010, 강정인·김현아 역, 『마키아벨리의 네 얼굴-군주론 너머 진짜 마키아벨리를 만나다』 서울: 한겨레출판 89-92.

당시 매우 과감하고 새로운 것이었다. 키케로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 ‘화합의 정신(Concordia Ordinum)’을 강조했던 16세기 피렌체의 인문주의자들에게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갈등관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일례로, 마키아벨리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귀차르디니(Francesco Guicciardini)는 그의 갈등관은 병자의 병을 칭송하는 것과 같은 분열 예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른 사상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 역시 “그 주제 면에서나 방법 면에서 그가 살던 당시의 지배적 지적 전통, 특히 인문주의 전통과 생각보다 훨씬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²⁶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그러한 인문주의적 전통을 사상의 기반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에 대한 과감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 수 있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바로 그의 현실주의적 정치관으로부터 기인한다. 즉 갈등에 대한 절대적 평가 기준을 벗어나, 역사적 실효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갈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상가들이 간과했던 갈등의 효용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갈등이라 하더라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법과 제도의 제정으로 이어진 갈등과, 공동체의 끝없는 분열을 몰고 온 갈등이 마키아벨리의 저작 내에서 각각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이다.

3. 국가(stato)의 수립과 유지

그 동안 마키아벨리의 대표 저작인 『로마사 논고』와 『군주론』, 그리고 『피렌체사』는 각기 다른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²⁶ 박상섭, 2002, 『국가와 폭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76.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는 각 저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정치 체제나 시대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마키아벨리가 각 저작에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대상이 각기 다른 듯 보이는 것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로마사 논고』에서 인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공화정이라는 정치 체제를 한껏 옹호하는 듯 보이던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는 인민의 참여를 배제시키며 군주 일인이 만들어가는 권모술수로 가득찬 군주정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맡는다. 『로마사 논고』에서 갈등의 효용성을 주장하던 마키아벨리가 『피렌체사』에서는 돌연 체제의 부패와 위기의 원인으로 갈등을 지목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마키아벨리가 공화주의자였는지 군주주의자였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주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²⁷ 게다가 그의 대표 저작인 『로마사 논고』와 『군주론』이 다루고 있는 정치 형태가 각기 확연히 구분되는 '공화정'과 '군주정'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형태의 정치체제를 선호했는지를 다룬 논의들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그의 저작들이 외견상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듯 보이는 이유가 그의 저작들을 개별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면, 종합적이고찰을 시도할 경우 저작들을 관통하는 마키아벨리의 일관된 주제의식을 발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저작들을 관통하는 마키아벨리의 일관된 주제의식은 '국가(stato)의 수립과 유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의 수립과정과 그것을 유지하는 과정을 구분하여 각 과정의 특징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였다.²⁸ 하지만 국가의 수립과 관련된

²⁷ 각주 14번 참고.

²⁸ 김경희는 이를 '치국'과 '건국'으로 표현한다. 그는 『군주론』 분석에 이 기준을

‘건국’ 및 ‘개혁’의 문제와, 일단 세워진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관련된 ‘치국’의 문제는 엄격하게 각 단계를 구분지어 살펴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가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들과, 일단 수립된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들의 차이점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하지만,²⁹ 마키아벨리의 논의는 많은 부분 역사적 사례에 대한 관찰과 상황성에 의존하고 있다. 분절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역사라는 지속적인 흐름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가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논의를 정형화 또는 원칙화 시키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의 논의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마키아벨리가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속적인 혁신의 필요성은 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문제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 중첩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마키아벨리 그 자신도 지적하고 있듯이 정체는 순환을 반복하며 그 안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혁신은 체제의 외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모든 질서와 제도를 새롭게 구성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 즉 정체의 순환에서 마키아벨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적인 혁신은 체제를

적용하였는데, 『군주론』에 등장하는 ‘선정(buon governo)’이라는 단어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우는 ‘건국’의 과정과 그것을 안정화, 제도화 시키는 ‘치국’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김경희, 2008, “마키아벨리의 선정론(buon governo)－『군주론』에 나타난 건국과 치국의 정치학,” p51-73. 이러한 그의 논의를 확장하면, ‘건국’과 ‘치국’에 대한 관심사는 『군주론』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저작을 관통하는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²⁹ ‘치국’에서 중요시된 것이 공적 제도와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정치구성원들이었다면, ‘건국’의 과정에서는 개혁을 실행하는 일인의 군주 또는 리더에게 그 무게중심이 더 치우친다. 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리는 각각의 단계에서 리더가 취해야 하는 행동방식 역시 달라야 함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군주론』 16장에서 ‘치국’의 단계에서 리더에게는 인색함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반면 ‘건국’ 단계, 즉 권력을 확고히 잡아나아가야 하는 단계에서 군주들은 관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새롭게 수립하는 건국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점을 살피기 보다는, '국가의 수립과 유지'를 지속적인 반복선상에 있는 것으로 두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 마키아벨리의 일관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논의의 중심에 둘 것이다.

『로마사 논고』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무엇이 로마 공화정이 위대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는가'이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 1권 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공화정 자체가 아니라, "공화정이든 군주정이든" 도시의 정치 체제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문제 의식은 '한 정치 체제가 어떻게 최고의 위대함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군주정을 다룬 『군주론』의 주제와도 명백히 연관된다. 그는 『군주론』에서 시종일관 '통치자가 어떻게 "위대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를 충고'하고자 하는 열망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³⁰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국가의 수립과 유지'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삼은 것은 '국가의 형태' 보다는 '위대함'의 성취로 볼 수 있다. 그가 그의 여러 저작들에서 일관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두는 '위대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일까? 마키아벨리는 '자유'를 그것의 대답으로 제시한다.

³⁰ 『군주론』 26장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목표가 그 스스로에게 명예와 영광을 안겨주고 인민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부 형태를 창안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왜 인민들 사이에 자유로운 정부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는지를 알아내기란 아주 쉬운 일이다. 경험이 말해주듯이 도시들은 오직 자유로운 상태에서만 영토나 부의 증대를 이룩하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로마가 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후 커다란 번영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자유를 누리는 모든 도시와 지방들은 매우 커다란 번영을 누린다(D II. 2).

자유는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인구와 영토, 그리고 부의 증대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국가의 거대 성장을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유로운 국가는 단시간 안에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공화정이라는,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로 변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위대함을 성취하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로마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마키아벨리는 자유와 위대함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자유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것일까? 여기서 마키아벨리의 자유는 그 차원을 나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유’가 정치적 차원에서 파악되는 개념인 만큼, 그것이 대외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대내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는 대외적으로 외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차원의 자유와 대내적으로 정치적 행위자들이 가지는 개인적 차원의 자유로 구분이 가능하다.³¹

³¹ 마키아벨리를 ‘자유철학자’라고 명명하기도 하는 스키너는, 마키아벨리의 자유를 외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대외적 차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및 개입을 통해 자치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대내적인 차원의 자유가 엮인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핏킨(Pitkin)은 정치행위자 개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구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그는 마키아벨리의 논의 안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칸트적 의미의 개인적 자유를 공유된 공적 자유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치적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가 결정을 내리고 집단적인 원칙과 삶의 양식, 곧 노모스(nomos)를 조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kinner, 1993, 강정인, 『마키아벨리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Pitkin, 1984, *Fortune is a woman*,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로마사 논고』를 번역한 강정인은, 마키아벨리의 자유에 대한 이들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마키아벨리의 자율 또는 자유 개념을 세 차원으로 구분한다. 즉

국가 차원의 자유는 곧 국가가 얼마나 자주적인지의 의미와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자들이 선호한 정치체제는 로마보다는 스파르타나 베네치아에 가까웠다. 특히 베네치아의 경우, 마키아벨리의 동시대인 대부분이 본받아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나의 종교적 신조와도 같게 여길 만큼³², 베네치아 정치 체제에 대한 믿음은 대단했다. 이는 “시민 내부의 불화는 모두 파당적이므로 불법화되어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아울러 파당은 정치적 자유에 대해 가장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라는 믿음”이 13세기 말부터 피렌체 정치이론을 주도해 온 명제였기 때문인데³³, 이로 인해 별다른 대립이나 소란 없이 평온한 상태로 자유롭게 존속한 베네치아가 그들에게 바람직한 공화국의 이상적 형태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지배적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무릇 인간 만사는 끝없이 변천 유동하기 때문에, 부침을 거듭한다. ... 그러므로 만약 공화국이 확장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적합하도록 세워져 있는데 필연에 의해 부득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국가의 토대가 흔들리고 순식간에 붕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늘이 그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비를 베푼다 해도, 그로 인해 그 나라가 유약해지거나 분열을 겪게 될 것이다(D I. 6).

인간의 개인적 행위의 관점에서 주변상황에 대한 인간 행위자의 ‘주체성’, 대내적 정치의 차원에서 공화정이라는 ‘자유로운 정부’, 그리고 대외적 정치의 차원에서 ‘독립성’ (또는 ‘자주성’)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자유의 차원 구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받아들여 개인적 차원의 자유와 대내적 차원의 자유를 구분하지 않고 대내적 차원의 구분에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는 향후 논의에서 개인적 차원의 자유를 다시 두 가지-지도자와 시민(귀족을 포함하는)-로 나누어 볼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과 정부 차원의 자유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³² Skinner, 2004, 박동천,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1』 373-374, 390

³³ Ibid, 389.

베네치아나 스파르타가 비교적 오랫동안 자유롭게 존속하기는 했지만, 끝없이 변화하는 인간 역사의 특성 상, 필연적이거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의해 스파르타나 베네치아와 같은 공화국의 형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의 거의 대부분을 정복했던 스파르타는 테베의 반란이라는 사소한 계기를 맞이하여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으며, 베네치아의 경우 용병과 관련해 다양한 수난을 겪다가 단 한 번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만다.³⁴ 이는 국가가 자유로운 방식으로 조직되고 그 구성원들이 국가 내에서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체제가 얼마나 순식간에 자유를 상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는 위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음은 물론, 국가의 확장된 영토를 잘 다스리고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³⁵ 를 취함으로써 스파르타와 베네치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그저 평화로운 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스파르타와 베네치아보다는 확장을 통해 위대함의 길을 걸은 로마의 방책이 국가를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시켜줄 수 있는, 역사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책이었던 것이다.

이는 국가를 논하는 학자들에 의해 좋은 정부 형태라고 여겨지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는 그다지

³⁴ P 12, D I. 6

³⁵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적절한 조치의 예 중 하나로 군대를 들 수 있다. 그가 가장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삼는 로마를 논함에 있어, 많은 탁월한 저술가들은 물론이요 로마인들 스스로조차도 로마의 승리를 운명의 여신의 공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로마가 승리를 얻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백히 “로마 군대가 지닌 효율성에 의한” 것이었다(D II. 1). 그는 저작 내에서 지속적으로 용병과 원군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정체의 유지를 위해 자국민으로 구성된 시민군의 존재가 얼마나 필수적인 지를 역설하고 있으며, 로마의 군대 체제가 이를 잘 증명해 보임을 주장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따라서 그가 이러한 정부 형태를 소위 “병약한 형태”라고 일컫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는 “세 형태의 좋은 정부는 단명”하며 그것과 유사한 나쁜 정부 형태로 너무 쉽게 변형됨으로써 좋은 정부 형태조차도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⁶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단명’이야말로 국가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베네치아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보았음에도 마키아벨리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외세에 의해 체제의 지속이 불가능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대함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에게 베네치아는 자주성을 상실한, 자유롭지 못한 체제에 불과했다. 마키아벨리가 외부의 세력에게서 지원을 받거나 그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에서 공히 등장하는 용병의 위험성에 관한 언급이나 자국의 신민 또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군대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모두 위대함을 성취함에 있어 국가의 자주성을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자유 의 또 다른 핵심적 차원인 대내적 차원의 자유의 경우, 이는 다시 행위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리더의 자유, 귀족(엘리트)의 자유, 그리고 인민의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민의 자유의 문제였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유를 희구하는 평민의 열망이 자유에 해로운 경우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평민이 자유를 보호하는 직책을 담당하는 것이 자유를 훨씬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D I. 5). 그는 단순히 인민들이 자유로움을 갈망하고 지배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서

³⁶ D I. 2, 78-81.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성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 즉 그들이 자유를 수호하는 직책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마키아벨리의 혼합정체의 성공적인 운영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자유란, 정리하면, 그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정치적 주체성 획득 및 유지를 통한 자유가, 국가의 자유 및 지속, 즉 위대함의 성취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는 마키아벨리가 살던 당시의 피렌체와 로마의 정치 지형을 비교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피렌체에서는 초기 자본주의와 그 주체가 되는 포폴로가 등장했으며, 경제적 하층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 당하였다.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한 이들에게 남은 방법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유인을 던지는 독재자와의 결탁뿐이었으며 이로 인해 피렌체는 거듭되는 분열과 내란, 그리고 부패라는 길을 걷게 된다. 물론 로마에도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하층민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로마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제도와 문화를 그들 내부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정치 구성원들의 정치적 주체성 확보가 로마의 자유를 오래도록 보존시킨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인민들의 정치적 주체성 및 자유의 문제와 더불어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리더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자유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인민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정치 참여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리더에 관한 논의는 소홀히 여긴 경향이 있다. 게다가 다른 구성원 또는 정치 행위자들보다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가지고 그들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일견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누구보다 리더의 ‘자유’이 체제의 자유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식자들은 임시 독재 집행관 제도가 결국 로마를 참주정치로 몰고 간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그 제도를 고안한 로마인들을 비난한다. 그들은 로마에 나타난 최고의 참주가 임시 독재 집행관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도시를 통치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 임시 독재 집행관의 권력이 법률상의 절차를 밟아 수여되고 개인의 권한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한, 그것은 항상 국가의 유익한 목적에 봉사했다. ... 로마의 긴 역사적 행로를 훑어보면, 국가에 공헌하지 않은 임시 독재 집행관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다(D I. 34).

참주의 씨앗이라고 비판 받는 임시 독재 집행관 제도를 마키아벨리가 공화국에 꼭 필요한, 더 나아가 공화국에 항상 유익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임시 독재 집행관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자율성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없었을 시 로마는 예상 밖의 생소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그것을 극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제도나 기구는 법적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기 마련이며, 만약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대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화국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상정하는 임시 독재 집행관과 같은 제도는 유사시에 공화국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것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이

제도를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가져온 요인들 중 가장 고려할 만한 것으로 여긴다. 이를 통해 리더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자율적인 리더의 의미는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는 참주 또는 독재자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획득한 권한에 한해 그것을 방해 받지 않고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제도를 통해 획득되는 리더의 자율성과 더불어 개인적인 역량 면에서 리더의 자율성 역시 중요하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그 스스로의 역량을 넘어서는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³⁷ 그는 이탈리아를 침입한 루이 12 세가 초기의 성공과는 달리 왜 실패하고 말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가 범한 실수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실수는 그가 매우 강력한 외세³⁸ 를 끌어들이으로써 결국 그들에 의해 몰락하게 된 것인데, 이 경우 루이 12 세는 스스로의 독자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일임에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 몰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묘사된다. 이 밖에도 군주가 자신의 무력, 즉 자국의 신민 또는 시민, 아니면 자신의 부하들로 구성된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용병과 원군에 의존하게 될 경우 이는 무익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³⁹ 이 역시 리더의 자율성과 관계되는 것으로써, 리더가 스스로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기 위해 타인의 무력이나 힘에 의존하여 자율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 이는 곧 체제의 자유의 상실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자유는 체제가

³⁷ P 2, 28.

³⁸ 스페인 왕 페르난도 2세.

³⁹ D I. 21, 150, P 12-13, 84, 98-99.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였으며, 이는 국가와 개인의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져 하는 것이었다.

결국 마키아벨리가 ‘국가의 수립과 유지’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들은 당시 그가 처한 현실, 그리고 그의 조국인 피렌체가 처한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피렌체사』가 전체적으로 쇠락과 멸망이라는 주제에 맞춰 구성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그의 조국 피렌체는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끊임 없는 분열과 적대 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외부적으로도 지속적인 외세의 침략에 의해 체제의 자유가 많이 상실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마키아벨리가 가장 고민하고 구상했던 것은, 체제가 어떻게 하면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는지, 즉 자유를 향유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함’의 성취와 관련된 화두는 『로마사 논고』와 『군주론』에서 공히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다.

III. 갈등의 해석학

마키아벨리는 갈등을 정치 내에서 불가피한 사회의 토대로서 주시하였다. 그에게 갈등은,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우모리(umori/e)가 발현됨에 있어서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 사이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우모리’는 르네상스 시기 의학에서 주로 사용된 개념으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대립하는 네 가지 체액⁴⁰을 통해 신체의 균형과 건강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인간 본성 및 정치체(body politic)를 분석하는 데 활용했는데, 여기서 ‘우모리’란 인간의 성향과 감정, 욕구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다. 마키아벨리 주장의 독창성은 그가 바로 인간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체 역시 다양한 집단과 계급이 적절하게 공존하며 그것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갈등이 정치체를 더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 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나 『피렌체사』에 등장하는 구성원들간의 불화, 불만, 갈등 등의 원인으로 바로 이 ‘우모리’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렌체사』 3권 1장에서,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진 귀족과 지배 당하지 않으려는 욕망을 가진 민중 사이에 펼쳐지는 자연스럽고 심각한 증오의 감정을 ‘우모리’라고 칭한다. 그런데 ‘우모리’, 즉 감정과 욕구와 같은 것은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상, 인간이 자신들의

⁴⁰ 여기서 인간의 네 가지 체액이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을 가리키며, 이 네 가지 체액이 인간의 신체를 구성한다. 이들이 과도하거나 모자라지 않을 때 인간의 신체는 건강을 유지하며, 반대의 경우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Parel, 1992, *The Machiavellians Cosmo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0.

'우모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런데 각자의 '우모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충족 간의 부딪침을 만들어낸다. 마키아벨리는 각자의 욕구 충족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딪침 역시 정치체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의 효용성을 주장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부딪침의 다양한 양상을 '갈등'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1. 갈등의 상반된 양상과 기존의 구분

마키아벨리가 개인들이 우모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갈등'이라는 일관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⁴¹ 'tumult', 'accidente', 'discordie', 'divisione', 'disunione' 등 단순한 소요와 고함을 지르는 행위에서부터 시위나 철시, 망명에 이르기까지,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구성원들간의 여러 부딪침의 양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한다. 이로 인해, 영어식 표현 역시 저자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Skinner 는 'disunion', Viroli 는 'conflict', Bock 는 'civil discord' 를 각기 다양한 형태의 부딪침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⁴² 국내의 논의의 경우,

⁴¹ 앞에서 언급했듯이, 『로마사 논고』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갈등'이라는 표현에 가장 적합한 단어 'conflitto'는 단 두 차례, 그것도 전쟁과 관련해서만 사용되었다. 박준혁, 2003, "갈등, 혼합정체, 그리고 리더십: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9, 173.

⁴² G. Bock, Q. Skinner and M. Viroli, 1990, *Machiavelli and Republicanism*,

'소요', '우연한 사건', '불화', '내분', '계급갈등', '계급대립'⁴³ 등 연구자들에 따라,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맞춰 다양하게 이러한 양상을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과 양상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를 하나의 일관된 개념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계급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모두 '갈등'이라는 틀을 통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마키아벨리는 로마 내에서 평민의 파벌과 부자의 파벌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에 유해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로마가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유와 공공선에 기여하는 로마의 좋은 법률과 제도가 모두 이러한 갈등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많은 명예로운 처신으로 가득 찬 공화국을 놓고 무질서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토록 좋은 모범적 처신은 좋은 교육에, 좋은 교육은 좋은 법률에, 좋은 법률은 많은 이들이 무분별하게 규탄하던 그러한 대립과 불화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결과를 엄밀히 검토한 자라면 누구나 그러한 대립이 공동선에 유해한 추방이나 폭력보다는 공공의 자유에 도움이 되는 법률과 제도를 생산해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D I. 4).

Cambridge University Press.

⁴³ 광준혁, 2003, “갈등, 혼합정체, 그리고 리더십: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9, 171-194; 박상섭, 2002, 『국가와 폭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진원숙, 1995, “마키아벨리의 계급대립론,” 『계명사학회』, 6, 137-177.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키아벨리가 갈등 자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갈등을 명예로움과 위대함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악” (D I. 6)으로 여기고 있으며, 갈등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좋은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갈등이 언제나 공공선에 기여하는 좋은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 갈등은 부정적이며 피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로마를 몰락하게 만든 갈등이나 피렌체에서의 갈등 양상을 들 수 있다.

로마 초기의 인민과 귀족 사이의 대립은 논쟁에 의해 해결된 반면 피렌체에서의 대립은 싸움에 의해 해결되었다. 로마에서의 대립은 법에 의해 해결된 반면, 피렌체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망명 및 죽음으로 끝이 났다. 로마의 대립은 항상 군사적 힘을 증강시켰지만, 피렌체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IF III. 1).

로마의 평민들이 호민관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귀족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는 부득이한 필요에 의해 강제된 욕망이었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성취하자마자 곧 명예 및 부-인간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를 귀족들과 공유하겠다는 야망과 기대감으로 인해 투쟁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무질서가 초래되었으며, 그것은 농지법에 대한 투쟁을 야기하였고 마침내 그 투쟁은 공화국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이다(D I. 37).

피렌체에서 귀족과 평민들의 갈등은 로마의 그것과는 달리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법과 제도로 귀결되지 못하였다. 대신 많은 유혈사태가 일어났으며, 갈등의 결과로 만들어진 법 역시 대립에서 승리한 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 로마의 경우에도 농지법을 둘러싼 평민과 원로원 사이의 갈등은 무력충돌 및

유혈사태를 야기하였고, 각 당파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내세운 지도자들로 인해 로마 최초의 참주⁴⁴가 탄생하고 말았다.

그 결과 농지법은 평민과 원로원 사이에 커다란 증오를 불러일으켜, 예전의 합법적인 습관이나 관습과는 반대로 급기야 무력충돌 및 유혈사태를 야기하였다. 당국이 그것을 치유할 수 없게 되자, 각 당파는 당국에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고 사적인 치유책에 의존하기로 하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지도자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D I. 37).

마키아벨리는 이에 대해 “농지법의 결과는 (갈등의 효용성을 주장한) 나의 믿음과 상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언급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D I. 37). 이렇게 갈등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마키아벨리는 여전히 갈등의 효용성에 대한 그의 신념을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체제의 위대함 성취와 자유의 확립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체제의 위기와 몰락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져왔는지, 그 원인에 대한 파악에 앞서 기존에는 어떤 차이들로 이러한 상반된 갈등의 원인을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 작업은 보통 『로마사 논고』에 나타난 갈등 상황과 『피렌체사』에서 보여지는 갈등 상황의 대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분열의 성격 및 행위자들이 갈등을 초래하는 동기, 그리고 각 그룹이 자신들의 우모리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단의 합법성 여부 등이 차이점으로 등장한다.

⁴⁴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로마 최초의 참주는 카이사르를 의미한다.

어떤 분열은 공화국에 해를 입히고 어떤 분열은 반대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은 진실이다. 전자는 파벌(factions)과 파당(partisans)을 동반하는 분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분열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IF VII. 1).

마키아벨리는 먼저, 분열이 파벌과 파당을 동반하는 지 여부를 통해 그것이 공화국에 이익을 주는지 해악을 끼치는 지를 알 수 있다고 언급한다. 여기서 파벌과 파당은 보통 개인들의 이기적인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통로가 정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적이며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한다. 로마의 몰락을 초래한 농지법 문제의 전개 과정 역시 이와 유사한데, 농지법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경우 “예전의 합법적인 습관이나 관습”과는 달리, 비합법적인 “무력충돌 및 유혈사태”로 이어지게 되었고, 공식적인 제도가 그것을 치유할 수 없게 되자 각 당파는 “사적인 치유책에 의존”하기로 한 뒤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참주의 씨앗이 되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갈등에 파벌과 파당을 동반하게 하며 갈등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만드는 것일까?

시민들이 도시에서 명성을 얻는 방식은 공익을 위한 것과 사익을 위한 것 두 가지가 있다. ... 사적인 방법은 행정관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돈을 빌려주며, 적합하지 않은 관직에 올려주거나 공공에게 오락거리와 선물을 제공해주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명성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적 의도를 내포한 행위는 파벌과

파당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명성은 국가에 해를 끼친다(IF VII. 1).⁴⁵

마키아벨리는 파벌과 파당이 개인의 사욕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성을 얻고자 한다. 마키아벨리는 명성을 얻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사욕을 위해 명성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로마는 사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는 파당과 파벌을 만들어 공화국에 해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사전에 현명하게 차단했는데, 그 예로 스푸리우스 멜리우스(Spurius Melius) 처형 사건이 있다. 로마에 기근이 닥쳤을 때 큰 부자였던 스푸리우스 멜리우스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무리가 그를 추종하는 파벌을 결성하였다. 로마 원로원은 이 세력이 가져올 수 있는 분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시 독재 집정관을 임명하여 그를 처형하였는데,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로마 원로원의 결정을 공화국을 위한 현명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사적인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파벌은 “공공을 부패시키”거나 “법을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용기를 심어” 줌으로써 공화국에 해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D III. 29).

이렇게 “사적인 방법(per modi privati)” 과 “사적인 의도” 가 파벌과 파당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이 부정적인 양상을 띠게 만든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무엇이 “사적” 이고 무엇이 “공적” 인지, 갈등이 부정적 양상으로 치닫기 이전에, “사적” 의도와 “공적” 의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로마가 고발제도와 임시 독재

⁴⁵ 『로마사 논고』 3권 28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집정관 제도 등을 통해 사적인 방법을 통해 세력을 키우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경계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누군가의 의도가 사적이었는지 공적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스파르타를 개혁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아기스가 참주정을 도모하려는 인물로 지목돼 살해된 예를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에서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적 정치관은 그 의도의 선악을 구분하기 보다는 정치적 실효성을 놓고 행위의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공화국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사적인 의도는 용인 가능함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피렌체사』에서 사적이고 이기적인 야망이 공화국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사욕을 추구하는 시민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사욕을 위해 그를 지지하는 과당을 가지지 않는다면, 비록 그들의 커다란 증오심을 저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는 공화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들이 과당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도 국가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들은 공화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비합법적인 일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감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IF VII. 1).

이는 정치의 세속화라는 마키아벨리 사상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기존의 도덕적 기준으로 정치를 판단하는 것을 비판하며, 정치는 그 나름의 세속적 기준으로 그 행위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여겼다. 게다가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그들의 본성에서 발현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여겼으며,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역시 필연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귀족이나 인민 등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우모리는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 또는 필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성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인식한다.⁴⁶ 따라서 의도에 있어서 사익의 추구 여부를 두고 이것이 갈등의 긍정적/부정적 양상을 가르는 축이라고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우모리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의 합법성 여부가 갈등의 양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마키아벨리가 로마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여기는 농지법 문제의 전개 과정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농지법 사태 이전에 발생했던 갈등들이 “합법적인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 전개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농지법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경우 “무력충돌 및 유혈사태”라는 비합법적인 모습을 띠었으며, 결국 이는 기존의 갈등들과는 상반되는, 로마의 몰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왜 어떤 갈등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고 다른 갈등은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치닫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갈등의 양상이 언제나 공적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반대의 상황—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갈등의 양상은 언제나 비합법적인 방식을 취했는지—도 언제나 들어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피렌체에서 끝없이 발생했던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분열과 대립이 피렌체의 부패와 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분열과 대립이 모두 공적인 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인가에는 의문의 소지가 있다.

⁴⁶ Parel, *The Machiavellian Cosmo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02.

그러므로 갈등의 상반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의도-사적인지 공적인지-와 수단-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지-의 문제로만 갈등의 양상을 구분했을 때 가지는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분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추가적인 기준은 기존의 구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도가 아닌 결과로 드러나는 관찰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갈등의 부정적 양상을 가져온 갈등들이 항상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면 왜 그러한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지, 비합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갈등이었음에도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갈등의 두 차원

마키아벨리는 개인간,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집단간의 갈등을, 각 측이 자신들의 우모리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갈등은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전개 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집단 또는 행위자들에게, 자신의 우모리 충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만큼 상대 우모리 충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이다. 갈등의 부정적인 양상과 그로 인한 체제의 부패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피렌체사』에서, 마키아벨리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제한된 승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를 모두 제거하고자 하는 독점욕이며, 이것이 갈등을 부정적 양상으로 치닫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의 우모리 표출을 용인하는 지 여부는 갈등의

양상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무페(Chantal Mouffe)⁴⁷의 논의는 갈등을 구분하는 좋은 틀을 제공해 준다. 쟁투적 민주주의(agonistic democracy)를 주장하는 그녀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중립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유주의 모델에 대해 비판적이다. 대신 그녀는 마키아벨리처럼 다원성이 인정된 정치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잘 제도화된다면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목표인 인민주권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치관을 피력한다. 그녀는 집단적 살상과 상호제거의 상황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집단적 적대감을 갈등적이기는 하지만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존 가능한 반감(agonism)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주장하는데, 즉 정치사회적 갈등이 과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대’를 ‘경쟁’으로 바꾸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갈등 역시 권력 획득을 위해 경쟁적으로 쟁투하며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쟁’ 차원의 갈등과, 상대를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인 ‘적대’ 차원의 갈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분을 마키아벨리의 주요 저작에 등장하는 상반된 갈등 양상을 구분하고 해석하는데 적용하여, 다양한 갈등의

⁴⁷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정치철학과 정치 이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 비교적 널리 소개된 진보적 학자다. 한국어로는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함께 저술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1985)이 『사회변혁과 헤게모니』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래, 『정치적인 것의 귀환』(*The Return of the Political*, 1993), 『민주주의의 역설』(*The Democratic Paradox*, 2000) 등이 번역되었다. 그녀는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집합되는 선호 집합적(aggregative) 자유 민주주의 모델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모델을 모두 비판하며, 사회관계의 구성 요소로서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두 가지 모델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의 중립성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적 쟁투(democratic contestation)의 지속적 보장을 위한 쟁투적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박준혁, 2009,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샬탈 무페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연구』, 129-186.

양상들을 좀 더 일관적이고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폐의 틀을 적용하여 마키아벨리의 갈등 양상을 구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경쟁’ 과 ‘적대’ 는 관찰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떤 갈등은 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갈등은 왜 부정적인 양상으로 치닫는지를 구분하는 기존의 설명은, 개인이 자신의 사사로운 명예와 야심을 위해 세력을 형성하면, 그것은 곧 파벌과 과당을 동반하게 되며 이는 곧 체제에 해악을 가하는 갈등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명은 개인이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에 도덕적인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부합하지도 않으며, 누군가가 명예를 얻기 위하여 하는 행위,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는 행위의 의도가 사적인지 공적인지를 구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한다. 하지만 ‘경쟁’ 과 ‘적대’ 는 굳이 개인의 본성이나 동기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찰 가능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경쟁’ 은 갈등 상황에 놓여있는 집단 또는 개인들이 서로 상대의 우모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대’ 는, 상대의 정치적 주체성이나 우모리는 인정하지 않은 채 개인 또는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우모리만을 중시하여 상대를 정치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거나 제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마에서 공공선에 기여한 법과 제도를 양산한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었는지, 로마의 몰락을 초래하고 피렌체를 부패로 몰아넣은 갈등들은 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었는지, 이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이 가능하다.

둘째는,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의 합법성 여부와 관련한 것이다. 기존의 설명에서 보통 갈등의 긍정적 양상은

그 과정이 공적인 제도의 틀 내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대의 경우 갈등 전개 과정에 폭력이나 유혈사태 등 비합법적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비합법적으로 전개된 갈등도 그것이 결국 좋은 법과 제도의 창출로 귀결된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설명은, 왜 어떤 갈등은 공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전개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그럴 수 없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주지는 못한다. 물론 비합법적인 전개의 경우, 공적인 제도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공적인 제도가 왜 어느 순간에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쟁’과 ‘적대’의 기준으로 갈등 양상을 구분하게 되면, 왜 부정적인 양상으로 치닫는 갈등에는 항상 비합법적인 수단이 사용되는 지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다. 정치사회 내에서 다른 집단을 모두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행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차원으로 전개되는 갈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집단들의 정치 행위의 목적이 체제의 공공선 달성이라는 큰 틀 안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우모리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반감은 상대를 제거하는 수준으로 치닫지 않고 상호 공존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유지된다. 즉, 갈등에 관계하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우모리의 성취 및 정치적 주체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 우모리의 발현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공존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행위에만 의존해서는 쉽게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적대’의 차원으로 번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창설로 이어진다. 반면, 자신들의 우모리만 중요시하고 타인들의 우모리는 중요시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빚어내는 갈등은 상호 공존과 견제, 그리고 그로 인한 경쟁의 양상이 아닌, 독점과 제거라는 적대적 양상을 떨 수 밖에 없다. 로마에서 마키아벨리가 그 효용성을 주장한 갈등은 바로 전자인 '경쟁' 차원의 갈등이었다.

마키아벨리가 긍정적으로 여긴 갈등이 경쟁 차원의 갈등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호민관 제도의 창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민들 상호간의 증오와 노여움을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 이러한 갈등이 공화국 전체를 몰락시키는 불법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게 방지하였으며, 항상 평민과 원로원을 중재하고 귀족들의 거만함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갈등을 합법적인 틀 안에서 중재하는 호민관 제도 역시나 갈등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로마 귀족의 인민에 대한 탄압과 횡포, 그리고 그에 맞서는 민중들의 저항과 봉기라는 두 세력의 갈등 상황이 먼저 존재했으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귀족과 인민들이 선택한 것이 호민관 제도의 창설이었던 것이다. 이는 갈등이 '경쟁' 차원으로 전개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 즉 지배권을 독점하고 있던 귀족들은 인민들과 자신들의 지배권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그 동안 지배 세력으로부터 온갖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인민들 역시 귀족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복수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에서 귀족들과의 공존을 인정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표현을 빌자면, 로마는 “귀족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 왕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빼앗는 법도 없었고, 인민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 귀족들로부터 권위를 전적으로 박탈하는 일도 없었다” (D. I. 2). 호민관 제도의 창설 당시 로마에서의 갈등은 대립하는 집단들이 '경쟁' 관계를 유지한 채, 상대의 존재를 용인하고 인정하는 형태로 전개가 되었던 것이다.

탄핵권 제도 역시 로마의 갈등이 경쟁적인 차원으로 전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갈등이 ‘적대’가 아니라 ‘경쟁’의 양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증오와 노여움이, 개인에게 내려진 합법적인 처벌로 해결됨으로써,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한 증오와 노여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 개인으로부터 연유한 적대감과 증오는 곧 집단이 집단에게 품는 적대감으로 변질 수 있으며, 이는 대립하는 집단을 제거해버리고 싶어하는 ‘적대’ 차원의 갈등으로 변질 수 있다.

만약 그가 폭도에 의해 살해되었다면 로마 공화정에 얼마나 커다란 폐해가 초래되었을 지를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개인과 개인 간에 피해가 속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피해는 공포를 낳고, 공포는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를 낳고, 이는 파벌로 발전한다. 파벌로부터 국가의 당파가 생기고, 이로 인해 국가는 파멸된다(D I. 7).

만약 피렌체에 시민들을 고발할 수 있고, 또 증상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역시 있었다면, 실제로 일어난 무수히 많은 분쟁이 정말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D I. 8).

예를 들어, 인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한 코리올라누스(Coriolanus)를 호민관이 탄핵권을 발휘하여 소환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촉발된 인민들의 분노는 그를 살해해버렸을 것이라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살해는 더 나아가 공화국 내의 파벌 싸움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예를 피렌체의 프란체스코 발로리(Francesco Valori)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프란체스코 발로리)에게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었다라면, 단지 그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에게만 피해를 입힐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불법적으로 몰아내야 했기 때문에, 피해가 단지 그에게만 그치지 않고 많은 다른 귀족들에게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다(D I. 7).

하지만 로마의 탄핵 제도는 시민들 내의 갈등이 집단 전체에 대한 증오감과, 그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하는 ‘적대’의 차원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그로 인해 자유의 지속이 가능했던 것이다.

반대로 ‘적대’ 차원의 갈등은 상호 적대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의 정치적 주체성이나 우모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를 정치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특징을 가장 많이 소유한 집단으로 『피렌체사』에서 포폴로(Popolo)를 언급한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의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서 포폴로를 ‘시민전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였지만, 피렌체에서 포폴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렌체사』에서 묘사된 피렌체의 상황에서, 중요한 분열의 양상 중 하나는 귀족과 포폴로 사이의 분열에 더하여 포폴로와 평민(plebe) 사이에 발생한 분열이었기 때문이다.⁴⁸ 따라서 포폴로는 로마에서의 인민과는 다르며, 피렌체에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생겨난, 자본을 모은 중산계층,

⁴⁸ 마키아벨리는 포폴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대(potente; grasso)/중(mediocre; medio)/소(minute; basso)로 구분하기도 한다(IF II. 42).

상인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⁹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이러한 포폴로들의 심리적 특징은 관대함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귀족들의 몰락이 워낙 크고 그들의 처지가 매우 비참해지자, 그들은 결코 포폴로에 대해 무기용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더 유순하고 비굴해져 갔다. 그 결과 피렌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관대함마저 상실하고 만다(IF II. 42).

귀족들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들의 명예의 중요성만큼,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주는 미덕을 발휘하는 법을 알았다. 하지만 포폴로는 이러한 귀족의 관대함을 물려받지 못한 채 상대에 대한 철저한 말살을 추구했다. 즉, 갈등의 결과인 ‘제한된 승리’ (IF II. 42; IV. 14; VII. 1)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완전한 제거를 추구하는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로마와 피렌체에서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전개된 것은 바로 이렇게 피렌체의 갈등이, 한 측이 다른 측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는 형태로 진행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포폴로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실례를 『피렌체사』 2 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25 년 피렌체의 귀족과 포폴로가 충돌하자 명성 높은 성직자가 이를 중재하고자 나선다. 그는 귀족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의 폐해를 지적하며

⁴⁹ 피렌체의 시민들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마키아벨리가 『피렌체 정체 개혁론(Discurs Florentinarum Rerum Post Mortem Iunioris Laurentii Medices)』에서, 모든 도시에는 상(primi)·중(mezzani)·하(ultimo)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것을 빌어, 길버트는 피렌체 사회 전체를 ‘부자’·‘중산층(mezzani)’·‘빈자’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으며, 크릭(Bernard Crick)은 마키아벨리가 정치 시스템을 구분할 때 계급을 상(gentiluomini)·중(grandi, ottimati)·하(plebe, uomini popolare)로 나누었다고 본다. 신철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정리하면서, 학자들마다 분류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피렌체의 사회 계급(계층)은 귀족, 포폴로, 평민(plebe)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계급 구분을 따라서 피렌체의 시민을 귀족, 포폴로, 평민으로 구분한다. Gilbert, *Marchiavelli and Guicciardini*, 23-4; Machiavelli, *The Discourses*, ed. And intro. Bernard Crick, 1998, New York; Penguin Books, 25n.9, 43n.14; 신철희, 2011, “마키아벨리와 스피노자의 ‘민’ 개념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23-124.

포폴로들을 설득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귀족과의 대결을 결의하였다.⁵⁰ 그리고 이러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특성은, 귀족에게서 승리를 쟁취한 이후 벌어진 평민들과의 대립 과정에서는 물론 그들 내부의 대립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포폴로는 그들이 귀족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누리던 정치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평민들과의 분열을 일으키며 귀족들과 똑같이 지배욕구를 내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견제해 줄 세력이나 하나로 뭉쳐야 하는 유인동기를 갖지 못한 채 내부에서도 끊임 없는 분열을 발생시키고, 중국에는 많은 구성원들의 죽음과 망명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⁵¹ 사실 지배욕이 본래 귀족들만이 소유한 것이 아님을 마키아벨리는 이미 『로마사 논고』에서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즉 당시 로마에서 인민들이 지배 받지 않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들이 지배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자유롭기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귀족과 평민의 실질적인 계급 구분이 사라지면서, 중산계층으로 성장한 포폴로는 어렵지 않게 지배권을 장악하고 지배욕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들의 상대를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적대’ 차원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갈등의 전개 과정에서 비합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는지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갈등을 구분함에 있어 또 다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갈등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은, 비합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식이 상대편을 말살시키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다.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전개된 갈등들이 중국에는

⁵⁰ IF II. 14

⁵¹ IF Preface

긍정적인 결과를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로마에서도 시민들이 일으킨 소요와 시위, 폭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원로원에 격분한 인민들이 무기를 들고 유혈극을 벌일 뻔하기도 하였다(D I. 55). 그러나 몇몇 시민들에 의한 원로원 존재의 필요성 역설과, 그들에 대한 인민들의 존경, 그리고 탄핵권이라고 하는, 반감을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움이 결국은 이러한 갈등이 ‘적대’의 차원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유사한 사건이 피렌체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분열된 두 파벌, 프라테스카(Fratesca)와 아라비아타(Arrabiata)의 무력충돌에서 프라테스카 파벌이 패배하면서 발생했다. 폭동의 와중에 무장한 인민이 패배한 파벌 측 시민인 파골란토니오 소데리니(Pagolantonio Soderini)의 집에 쳐들어가 약탈을 자행하고자 하였지만, 이 갈등은 다행히도 당시 추기경인 프란체스코(Francesco)에 의해 제지될 수 있었다. 무장한 폭도들은 그에 대한 존경으로 행동을 멈추었으며, 이를 통해 비합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것이 항상 갈등의 역기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갈등이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 제도 내에서 또 다시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합법적인 틀에서 발생하는 갈등이건, 비합법적인 방식이 동원된 갈등이건, 독점과 제거의 상황인 ‘적대’ 차원으로 전개되지 않는 것이다.

3. 갈등의 구성

마키아벨리가 모든 갈등이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고 나면, 그가 유용하다고 본

‘경쟁’ 차원의 갈등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 지가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귀족과 인민간의 대립’이라는 포괄적인 갈등의 정의로는 그것의 부정적인 양상과 긍정적인 양상을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갈등의 긍정적 양상인 ‘경쟁’ 차원의 갈등의 측면을 강조할 수 있도록, ‘리더를 포함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체성 유지를 위해 상호 견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갈등을 파악하고, 갈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갈등에 관계하는 ‘세 정치적 주체’와 그들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견제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갈등의 세 주체

마키아벨리의 갈등을 귀족과 민중 양자간의 계급적인 갈등으로 해석하는 많은 논의들은 마키아벨리가 사용한 ‘우모리(umori)’ 개념을 통해서 이를 설명한다.⁵² 마키아벨리는 개인의 우모리와 집단의 우모리를 동일시하였으며, 따라서 개인의 우모리는 그대로 집단의 우모리에 투영되어 계급 간의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신철희 2011, 86-88). 이러한 우모리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기본적으로 인민과 귀족으로 대표되는 양자간의 계급갈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귀족의 우모리의 특징은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갈망인 반면에, 인민들은 단지 지배당하지 않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⁵³ 이처럼 두 계급의 우모리는 도시 내의 다양한 우모리 중에서 마키아벨리가 가장 비중

⁵² 파렐(Anthony Parel)은 우모리를 우주의 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원인의 측면에서 보는 반면, 코비(Patrick Coby)는 우모리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계급적 동기를 중시한다. 한편 맥코믹(John McCormick)은 우모리를 지배와 관련한 인간의 욕구로 바라보고 있다. McCormick, 2001, “Machiavelli’s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2, 298.

⁵³ D I. 5; IF II. 2; II. 12; P. 9

있게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며, 우모리로부터 기인하는 갈등 역시 자연스럽게 인민과 귀족의 계급갈등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갈등 상황에 관련하는 정치적 주체들을 좀 더 넓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신중한 자들은 이러한 결함을 인식하고 각각의 유형을 있는 그대로 취하는 것을 피하고, 처음의 세 가지 좋은 정체가 갖는 성격을 모두 다 포함한 하나의 정체를 택하여, 그것을 가장 견실하고 안정된 것이라 판정하였다. 그 이유는 동일한 도시 안에 군주정, 귀족정, 민중 정부의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있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이다(D I. 2).

그 후 세 유형의 모든 정부 형태가 자기 몫을 갖게 됨으로써 공화국의 조건은 더욱 견고해졌다. 게다가 운명은 로마에 호의를 베풀어, 위에서 논의한 경위와 이유에 따라 로마가 왕과 귀족의 정부에서 인민의 정부로 전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 왕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빼앗는 법도 없었고, 인민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 귀족들로부터 권위를 전적으로 박탈하는 일도 없었다(D I. 2).

여기서 로마 공화국에 존재했던 갈등,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공화국의 공공선에 기여했다고 여긴 갈등은 단순히 귀족과 민중이라는 두 개의 대립된 파벌만의 갈등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귀족과 민중 상호간의 견제뿐만이 아니라 리더(왕, 군주 또는 군 지휘관 등을 포함하는)와 귀족(지배계급, 엘리트), 민중이라는 모든 요소들간의 상호 견제에 의한 갈등이 견실하고 안정된 정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여긴 것이다.⁵⁴ 따라서 귀족과

⁵⁴ 뿐만 아니라 그는 계급 내부에서 일어나는 견제도 중시했는데 예를 들어 그가 보기에 호민관 제도는 평민들에 대한 귀족들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에는 물론 귀족들 간에 일어나는 횡포를 견제하는 데에도 유용한 제도였다(D I. 50).

인민간의 대립으로 마키아벨리의 갈등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갈등을 구성하는 주체에 리더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리더를 갈등 상황에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바라봐야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마키아벨리가 저작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치체들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즉 그것이 로마 공화국이건, 피렌체의 군주정이건, 피렌체 공화정이건 간에 각 정치체는 모두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체제였던 것이다.⁵⁵ 이런 체제에서 리더와 다른 정치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인민과 귀족의 대립항은 물론 인민과 군주의 대립항 역시 정치체 내에서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통치에 있어서 리더의 자리에 위치한 자들과 인민들 사이의 탄압과 저항, 복종 등의 다양한 갈등 양상은 체제의 건강함에 큰 기여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를 배제하고 갈등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중요하게 여긴 갈등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더가 가졌을 때 바람직한 성향과 기질은 무엇이며, 더 근본적으로 그의 우모리는 출신 계급과 상관 없이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의 본성이 어느 정도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 마키아벨리는 그러한 본성의 발현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모리 역시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것이 우모리가 고정적이며 불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맥코믹(McCormick) 등이 우모리를 귀족의 지배욕구 및 인민의 지배 받지 않으려는 욕구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마키아벨리는 지배에 대한 갈망이 귀족 계급의 고유한 우모리는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⁵⁵ 세습형 군주국을 제외한 군주국의 경우.

의심의 여지 없이 귀족과 귀족이 아닌 자들의 목적을 검토해보면, 전자에게는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갈망이 있고, 후자에게는 단지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갈망, 다시 말해 귀족들보다 지배권을 장악할 전망이 적기 때문에 자유 속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D I. 5).

위 구절은 마키아벨리의 갈등을 상반되는 열망을 가진 두 계급 간의 갈등으로 여기는 논의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다. 하지만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민들의 우모리가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갈망’인 이유 또한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귀족들보다 지배권을 장악할 ‘전망이 적기 때문’인데, 그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우모리가 ‘지배 당하지 않으며 단지 자유 속에 살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저 차선책으로 지배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즉, 우모리는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며, 대표적인 두 계급의 반대 성향으로 대변되는 ‘지배’에 관련한 우모리 조차 상황에 따라 충분히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로마의 몰락 시기와 피렌체에서 발생했다.

인민들에게 맡겨진 권위는 공화국에서 수많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고 귀족들을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 급기야 사악한 효과를 초래하게 마련인 것이다. ... 로마에서는 호민관들이 이러한 권력을 그들의 손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민들은 평민 출신의 집정관 1인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2인의 집정관 모두가 평민이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감찰관, 사법관, 그리고 정부의 다른 모든 관직을 원했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지 그들은 동일한 야망에 의해 급기야 귀족을 타도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 인물들을 우상처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로부터 … 로마의 몰락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D 1. 5).

로마에서 인민들은 모든 정부의 관직을 그들이 독점하기를 원하며 귀족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고 이는 곧 로마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피렌체에서 역시, 인민들은 귀족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저 지배 받지 않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우모리를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여 귀족들을 배제했으며, 심지어 하층민들(plebs)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드러냈다(IF II. 14). 이러한 예를 통하여, 우모리가 불변하는 것이거나 또는 특정 계급이 특정 우모리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같은 계급에 속한다고 해서 동일한 우모리를 소유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두 가지 예로 구분하는데, 인민 출신이지만 정치 성향은 귀족적이어서 귀족과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을 “포폴라리(popolari)”, 이와는 반대로 출신은 귀족 계급이지만 인민의 정치적 성향과 더 가까워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이들을 “노빌리 포폴리(nobili popoli)” 라고 불렀다.

따라서 귀족과 평민이라는 두 계급을 상정하고 각 계급이 가지는 우모리의 특징-귀족은 지배하려 하고 평민은 지배 받지 않으려 하고-을 원인으로 갈등을 단순화해서 정의하는 것은 마키아벨리의 논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마키아벨리의 우모리 이론은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우모리를 소유한 (또는 그 우모리와 동일시되는) 주체, 우모리가 지향하는(원하는) 목적이나 대상, 그리고 우모리의 해소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⁵⁶ 우모리를 소유한 주체를 각 정치적 주체가 되는 세 계급으로, 우모리가 지향하는 목적이나 대상을 그들 각각의 자유와 정치적 주체성의 지속으로, 그리고 우모리의 해소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갈등으로 본다면, 체제가 어떻게 하면 자유와 지속성을 갈등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서 리더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우모리 소유의 주체로 등장한다.

(2) 주체들간의 관계: 견제

갈등은 서로 다른 정치적 주체들이 자신들의 우모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마키아벨리가 정치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상호성’을 그 전제로 하며,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마키아벨리도 이를 다툼, 불화, 대립, 분열 등 각 상황에 맞춰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 양상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서 각 주체들간의 ‘상호 견제’를 들 수 있다. 즉 갈등의 목적은 자신들이 속한 계급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여 권력이나 명예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계급도 완전히 정치에서 배제되거나, 자신들의 자율성,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키아벨리가 혼합정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은 각 계급들의 장점을 통해 혼합정을 이루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나, 완전한 선으로 완전한 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귀족정이라는 단순 정체를 최선의 것으로 여긴 플라톤과는 다르다. 그는 불완전하고 일면 악하기도 한 정치

⁵⁶ 신철희, 2011, “마키아벨리와 스피노자의 ‘민’ 개념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9.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선의 발휘를 통합이 아니라 상대방이 악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을 혼합정의 기초를 이루는 전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⁵⁷

여기서 우리는 먼저 호민관 제도의 가치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제도가 평민들에 대한 귀족들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에는 물론 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횡포를 견제하는 데에도 유용했기 때문이다. (D I. 50).

결국 임시 독재 집정관이 창설되었을 때는 각각의 권한을 가진 호민관이나 집정관이나 원로원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임시 독재 집정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권한을 박탈할 수는 없었다. 또한 임시 독재 집정관이 집정관이나 원로원의 한 사람을 파면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로원이라는 제도 자체를 말살하거나 새 법률을 선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로원·집정관·호민관은 각각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임시 독재 집정관이 본래의 궤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D I. 35).

예를 들어, 호민관 제도는 인민의 안전을 위해 창설되었지만 이것이 비단 계급 간의 갈등에서 인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로만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계급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비롯하여 사회 내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에 대한 견제력을 발휘하여 다른 계급이나 직위에 속한 자들이 사회에 악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원로원이나 집정관 등의 관직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왕의 권력에 해당하는 제도로 유지된 집정관과 원로원 역시 자신들 고유의 역할을 넘어서서, 다른

⁵⁷ Coby, 1999, *Machiavelli's Romans*, Lanham, Md.: Lexington Books, 35.

행위자(여기서는 임시 독재 집정관)가 본래의 궤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견제 기능이 갈등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가는 임시 독재 집정관 제도와 로마의 10 인회가 각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차이점을 비교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로마의 임시 독재 집정관 제도는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1 인에게 큰 권력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서 참주정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다.⁵⁸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시 독재 집정관은 각기 원로원과 집정관, 그리고 호민관에 의해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임시 독재 집정관이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 국가에 해독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0 인회가 창설되었을 때 로마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10 인회가 창설되었을 때 ... 집정관과 호민관이 폐지되고 10 인회는 마치 그들이 로마 인민 전체인 양 법률을 제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집정관과 호민관도 없이, 심지어 인민의 심의권에도 구속되지 않은 채, 다시 말해 아무런 감시와 견제를 당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으며, 2 번째 되는 해에는 이미 아피우스(Appius)의 권력 야욕에 휘말려 온갖 횡포를 부리게 되었다(D I. 35).

로마의 10 인회는 인민의 자유로운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직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인회가 창설된 로마에는 그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을만한, 즉 그들을 견제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⁵⁸ 임시 독재 집정관의 권한으로는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력,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력, 상소 절차를 인정함이 없이 누구든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권력 등이 있다(D I. 34).

직책과 제도가 남아 있지 않았다. 이렇게 견제 기능이 상실된 사회에서 이 제도는 얼마든지 공화국의 자유와 지속에 유해한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체제의 위대함과 명예로움의 달성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권한의 부여와 지속보다는, 경쟁적 차원의 ‘갈등’이 지속적으로-제도 외부에서건 제도의 형태로건-존재하는가의 여부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적 차원의 갈등은 각 정치적 주체들이 상호 견제하는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

공화정보다 리더에게 좀 더 많은 직책이 부여되는 군주정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군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갈등’ 기능의 존재 여부는 체제의 위대함 성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군주정을 집중적으로 다룬 『군주론』은 일견 군주만이 핵심적인 등장인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군주론』 내에는 사실 군주를 비롯하여 여타 다른 정치적 행위자들이 상호 만들어가는 갈등 양상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군주론』 19 장에서 그는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과, 군주, 그리고 군인 등의 정치 집단으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하며,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성향(umore)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역설한다. 이처럼 군주가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인민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P 9) 이라는 언급이나, 평판을 중요시하고 시민과 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 자신이 참주로 전략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견제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군주정에서도 경쟁적 차원의 갈등이 필요함을,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 구성원들의 상호 견제력임을 알게 해준다.

IV. 정체의 순환과 갈등의 역할

앞 장에서, 마키아벨리가 체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여긴 갈등은 '리더를 포함하는 세 정치적 주체가 상호 견제'를 통해 만들어 내는 '경쟁' 차원의 갈등임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마키아벨리가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체제의 위대함 성취, 곧 체제의 자유와 지속에 효용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는지, 저작에 등장한 역사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그리고 혁신 차원에서 갈등의 역할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1. 갈등과 제도 창출의 선순환

갈등은 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유와 공공선에 기여하는 좋은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인지하고 있던 갈등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갈등은 그러한 법과 제도가 잘 시행되는 데에, 그리고 변화한 상황에 맞지 않는 법률과 제도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정부형태를 대표적으로 6 가지로 분류하는데 여기에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참주정, 과두정, 그리고 무정부상태가 해당된다.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은 비록 좋은 정부 형태이기는 하지만 단명한다는 것에 그 한계가 있고, 참주정,

과두정, 무정부상태는 사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러한 논리 전개 과정을 통해 마키아벨리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혼합정부 형태의 우월성이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왜 혼합정부가 다른 정부형태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았을까?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신중한 자들은 이러한 결함을 인식하고 각각의 유형을 있는 그대로 취하는 것을 피하고, 처음의 세 가지 좋은 정체가 갖는 성격을 모두 다 포함한 하나의 정체를 택하여, 그것을 가장 견실하고 안정된 것이라 판정하였다. 그 이유는 동일한 도시 안에 군주정, 귀족정, 민중 정부의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있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이다(D I. 2).

마키아벨리는 이를 갈등, 더 정확히 말하면 경쟁적 형태의 갈등에서 찾았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된 혼합정체에서 그들의 참여가 빚어내는 갈등은 곧 상호 견제에 의해 공공선을 지향하는 체도를 창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혼합정체는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체 내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며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견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법과 제도는 당연히 어느 한 측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을 지향한다.

왕의 권력에 해당하는 제도는 유지했다. 그 결과 국가기구에 집정관과 원로원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세 요소 가운데 두 요소, 곧 군주정과 귀족정의 혼합이 형성되었다. 이제 정부 내에 민중의 역할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만 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 로마 귀족이 다음에 설명할 이유로 황보를 부리게 되었을 때 민중들이 그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키고, 급기야 귀족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민중들에게 그들의 몫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되었다. ... 그리하여 호민관이라는 관직이 창설되었다(D I. 2).

최초의 행운-가장 견실하고 안정된 정치질서와 법을 세울 수 있는 입법가 또는 건국자를 체제가 최초에 만들어질 당시 가지는 것-은 누리지 못했던 로마가 자유로운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평민과 원로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곧 견고한 공화국에 적합한 좋은 법률과 제도를 가진 혼합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태적 정치관에서 봤을 때, 모든 정체에는 부패의 위기가 상존한다. 즉 언제나, 그리고 너무 쉽게 그와 비슷한 사악한 정체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혼합정체 역시 마키아벨리가 상정하고 있는 부패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갈등의 중요한 역할이 등장한다. 갈등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또는 시간이 흘러 더 이상 공공선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갈등이 단순히 애초에 훌륭한 법과 제도를 창출해내는 데 그친다면, 시간이 흘러 부패가 생기고 법과 제도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그 체제는 위기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혼합정체에서 갈등은 단순히 최초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갈등을 통해 또 다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낸다. 즉 갈등과 제도의 선순환이 존재하는 것이다. '갈등' 을 통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현존하는 갈등을 아우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공공선에 위배되는, 즉 한 세력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제도가 창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갈등' 이 용인되는 사회, 즉 언제나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혼합정체는, 이러한 갈등을 견제력으로 활용하여 다시금 새로운 법과 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부패 가능성이 상존하는 정치체에서 가장 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치체에 상존하는 위기는 부패뿐만이 아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은 한 시대에 역량 있던 개인이나 제도를 순식간에 불필요하고 쓸모 없는 것으로 변모시킨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또는 성공적인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어떤 시대의 어떤 상황에 체제가 놓여있느냐 있다.

잘못된 선택이나 태생적인 성향 때문에 시대와 잘 조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행 속에 살며 그들의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시대화 잘 조화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이다(D III. 8).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 곧 영광과 부에 대해서 상이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한 사람은 신중하게 다른 한 사람은 과감하게, 한 사람은 난폭하게 다른 한 사람은 교활하게, 한 사람은 참을성 있게 다른 한 사람은 그 반대로 나아갑니다. ... 신중한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 이러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 양식이 그들이 행동하는 상황에 부합하는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P 25).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어떤 성향이나 특성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없으며, 시대와 상황이 그러한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가 적합한가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이는 체제의 성공적인 유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정부가 얼마나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잘 적응하느냐가 체제의 성공적

유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것이 한 인간이든 혹은 체제이든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꽤 오랜 기간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하던 베네치아나 스파르타가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이다. 하지만 로마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해 내고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공화국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시대적 조건의 다양성에 스스로를 훨씬 잘 적응시킬 수 있다(D III. 9).

공화정은 명백히 ‘저변이 넓은 정체’⁵⁹ 를 지향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장되고 있었으며 군대 역시 자국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⁶⁰ 이는 결국 권력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는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갈등은 ‘경쟁’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모두에게 권력이 공유되어 상호 경쟁적인 견제가 가능한 사회야말로, 마키아벨리도 언급하고 있듯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스스로를 훨씬 잘 적응시킬 수 있다.’

⁵⁹ 인민과 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피렌체 공화정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저변이 넓은 정체(governo largo)’와 ‘저변이 좁은 정체(governo stretto)’는 서로 경쟁하는 정치모델들이었으며, 전자는 마키아벨리에 의해, 그리고 후자는 피렌체 귀족 가문 출신인 귀치아르디니에 의해 주창된다. 인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획득되는 ‘안정’에 더 주목한 것이 귀치아르디니였다면, 마키아벨리는 인민이 자신들의 고유한 정치공간을 가질 때 정치공동체의 힘 또는 국력의 신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⁶⁰ 자국민으로 구성된 시민군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곧 일반 시민들에게 무기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평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치적 주체성의 유지

갈등이 개인적 차원에 행사하는 영향은, 체제의 구성원들이 끊임 없이 상대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을 통해 스스로의 정치적 주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주체성은 곧 다시 갈등이 '적대'의 차원이 아니라 '경쟁'의 차원으로 전개되는데 영향을 끼침으로써 갈등과 정치적 주체성의 유지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게 된다.

경쟁적인 차원으로 유지되는 상호 갈등이 구성원들의 정치적 주체성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경쟁 차원의 갈등과 적대 차원 갈등의 차이점을 주목해 보면 알 수 있다. 갈등이 적대 차원으로 변질되지 않고 경쟁 차원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위자들이 제도의 틀 내에서 자신의 우모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상대의 우모리 충족 역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치적 주체성은 바로 정치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우모리 충족을 위해 '합법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타인의 우모리 충족을 '인정' 하는 것 이 두 차원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로 정치적 지지와 재물 또는 명예에 대한 욕구를 맞바꾸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 3 권 28 장에서 사적인 방법을 통해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해악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적인 방법의 예로는 “다양한 개인들에게 사사롭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딸을 결혼시키며, 행정관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 밖에도 사적으로 유사한 호의를 베풀어 시혜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D III. 28). 이렇게 사적인 방법을 통한 명성의 획득은 곧 파벌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공화국이 부패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적인 방식으로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이 구절은 그러한 수혜와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를 맞바꾸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며, 바로 이들이 시혜자를 추종함으로써 파벌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로마에서 불법적인 권한을 장악하고자 갈망하던 스푸리우스 카시우스(Spurius Cassius)는 인민들에게 재물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지지하는 파벌을 형성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정치적 주체성을 잃지 않았던 당시의 인민들은 그 제안을 전적으로 거절하였고 참주정에 이르는 길 역시 방지할 수 있었다(D III. 8).

자신들의 우모리만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 역시 정치적 주체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체제에 다양한 행위 집단이 사라져서 상호 견제가 사라지게 되면 홀로 남은 집단 역시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주체성은 물론 체제의 자유와 지속성 역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에서도 이러한 참주정을 수립하려는 악폐가 다른 대부분의 도시와 동일한 원인, 곧 자유에 대한 인민의 지나친 욕망과 귀족들의 지나친 지배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당파가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어서 그 중 어느 한 당파가 어느 한 인물을 성급하게 지지하게 되면, 참주정이 재빨리 출현하게 된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D I. 40).

위정자가 제대로 행동하도록 감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감시조치를 철회하고 10 인회를 로마의 유일한 관직으로 만들면서, 모든 다른 관직을 폐지했다. 귀족들은 호민관을 없애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에서, 인민은 집정관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욕망에 전적으로 눈이 멀어 그들은 그토록 잘못된 조치에 합의하고 말았다(D I. 40).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은 줄곧 체제 내에서 상대의 자유와 정치적 주체성은 물론이거니와, 참주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자유마저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분열된 도시를 취하는 방법: 분열된 도시를 취하는 적절한 방법은 ... 그 도시의 파벌들이 무력충돌에 이르지 않는 한 당파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행세하는 것이다. ... 그들 양쪽 모두가 내전을 오래 지속하여 기진맥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D II. 25).

피렌체 시민들은 우차노의 충고를 듣지 않고 힘을 모아 코시모에게 대항하였고, 그를 피렌체에서 추방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이러한 박해에 분격한 코시모의 당파는 얼마 안 가 코시모를 도로 불러들여 그를 공화국의 원수로 앉혔던 것이다. 시민들이 펼친 공공연한 코시모 배척운동이 없었더라면 그가 공화국의 원수 자리에까지 오르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D I. 33).

그리고 자유가 사라진 체제,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상대를 제거하는 것에만 온 힘을 쏟고 있는 사회는 외부의 조그만 공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피렌체에서 포폴로 집단이 어떤 식으로 분열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귀족을 몰살시키고 평민들을 탄압하고 지배하며 권력을 독점하였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만은 분파로 갈라지며 끊임 없는 분열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피렌체는 분열되고 불안정하며 부패에 휩싸이고 만다.

마키아벨리는 갈등이 제도적 차원에 행사하는 영향보다 개인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의 수립과 유지, 그리고 위대함의 성취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상호 견제를 위해 좋은 제도를 창출해내는 것도 정치 행위자이며, 그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발전시키는 것 역시 행위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는 로마의 10 인회가 인민의 자유로운 보통선거라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권한을 획득했음에도 참주로 변하여 로마의 자유를 유린한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내가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 결코 어떤 공화국에도 유해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나는 인민들이 그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또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민이 속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버려 ... 로마인이 당했던 것과 같은 똑 같은 재난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D I. 35).

법과 제도가 갈등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의 효용성은, 인민이 정치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며, 10 인회 사건의 경우 로마 인민들처럼 여러 이유로 인해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즉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합법적인 제도도 순식간에 자유를 해치고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흉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법과 제도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정치적 주체성 유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마키아벨리가 임시 독재 집행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언급한 것 중 하나는 “로마 민중들이 아직 타락해 있지 않았다는 점” 이었다(D I. 34). 이는 로마 인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다른 것과 맞바꾸거나 정치 권력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주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견제가 임시 독재 집정관이라는 위험한 제도가 공화국에서 유용하게 운용될 수 있게 뒷받침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적 갈등이 구성원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군주정을 논함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악덕과 권모술수의 집합체인 것처럼 보이는 『군주론』은, 사실 통치자가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써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가장 견제하는 것은 군주가 그 구성원들로부터 증오나 미움, 경멸을 받는 것인데, 그는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주가 다수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미움이나 경멸을 받는 것이 좋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군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던가 도덕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러한 미움이나 경멸은 군주의 몰락을 쉽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다수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일만큼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미움이나 경멸이 한결같이 앞에서 검토된 황제들을 몰락시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군주가 음모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책들 중 하나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모자들은 항상 군주의 암살이 인민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고 일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소행이 인민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음모자들은 일을 도모하는 것을 무척 주저할 것입니다(P 19).

대다수의 인민과 귀족들로부터 광범위한 호감을 얻고 있는 군주는 그만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쉽다. 내부에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찬 소수의 적들이 존재할지라도, 단순히 그들이 자신들의 개별적인 피해들로 인해 지도자에게 대항하는 반대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그들이 그러한 반대를 형성하고 복수를 시도하려는 기백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군주가 얻고 있는 광범위한 호감이 그들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다수 구성원들로부터 호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밝히고 있듯이, “사람들은 잘 다스려질 때에는, 그 밖의 다른 자유를 추구하지도 소망하지도 않는다”(D III. 5). 즉 그들은, 자신들의 주체성이 인정되고, 합당한 방식으로 대우 받는다고 여기는 한, 다른 행위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일례로, 코린트(Corinth)의 티몰레온(Timoleon)이나 시키온(Sicyon)의 아라토스(Aratos)와 같은 군주의 경우, 그들이 사사로운 개인으로 물러가 살기 위해 여러 번 양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최고의 안전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군주의 지위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당했던 것이다(D III. 5). 이와는 반대의 사건이 로마에 발생했다.

섹스투스가 ... 왕국의 법을 위반하고 전제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는 원로원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여 자기 수중에 집중시켰다. ... 민중들마저 그의 전임자들이 그들을 부리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천한 노역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그에 대해 분개하도록 만들었다. 군주들은 인민들의 삶을 오랫동안 규율해 온 법과 전래의 관습 및 관례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D III. 5).

자신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로마의 원로원과
인민은 기회가 닿으면 언제라도 반란할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섹스투스의 지위는 박탈되었다.

군주가 가장 걱정해야 할 문제가 다른 구성원들의
반란이라면, 다른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참주로 전락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주와 다른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상호 견제는 군주가 구성원들로부터
호감을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를 좋은 리더로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 따라서 결국 리더가 참주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주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를 견제하고 감시해줄 수 있는
경쟁적 갈등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3. 부패와 혁신

마키아벨리의 동태적 정치관은 체제에 끊임 없는 인위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어떤 체제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패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체제가 부패하지 않은 경우, 갈등은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며 체제가 위대함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로마가 몰락하던 시기
또는 『피렌체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체제가 부패한 상황에서
갈등은 오히려 체제의 몰락을 촉진하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체제는 끊임 없는
혁신을 필요로 한다.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이러한 혁신과 건국의 과정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체제의 유지와 발전 과정에서 그가 중시한, 정치적 행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상호 견제하는 갈등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 듯 보인다. 혁신은 일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어렵지 않게 그의 저작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마키아벨리가 그토록 중시하던 갈등의 역할을 잠시 제쳐두고, 카리스마를 가진 영웅에게 위기 혁신 과정의 모든 역할을 일임했다고 해석한다.⁶¹ 이러한 해석 하에서, 혁신 과정에서는 여타 다른 정치적 행위자들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갈등도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마키아벨리의 언급에 대한 표면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번 장에서는 그가 혁신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일인의 리더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작업을 통하여, 혁신 과정에서도 그가 여전히 '갈등'이 가지는 특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1) 부패와 위기

종교와 공화국 및 왕국의 모든 시초는 그것들로 하여금 최초의 명성과 최초의 성장을 획득하게 만든 모종의 선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일이 흐름에 따라 그 선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 올바른 위치로 복원시키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지

⁶¹ 마키아벨리를 군주주의자로 보는 헤겔(Hegel 1986))은 마키아벨리가 당시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여, 통일 국가 건설을 목표로 두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영웅 탄생을 기대했다고 본다. 그람시(Gramsci 1986) 역시 마키아벨리의 의도가 봉건적 무질서를 극복하고 절대 군주정을 수립하는 것에 있었다고 여긴다. 그를 공화주의자로 여기는 비롤리(viroli 1998)나 포콕(Pocock 1975)의 논의 역시, 마키아벨리가 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위기 해결자' (redeemer) 또는 '혁신자' (innovator)의 역할을 일인 군주에게 일임했다고 주장한다.

않는다면, 그 부패는 필연적으로 그 본체를
파멸시킨다(D III. 1).

혁신은 마키아벨리에게 중요한 주제였다. 앞서 살펴본 그의 정체 순환에 따르면, 그것이 어떤 체제이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패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였으며, 이 문제는 그의 저작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떤 상황이 혁신이 필요한 상황인지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체제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 상황이란, 갈등과 제도화의 선순환이 사라지면서 제도가 갈등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게 되고, 체제 내 구성원들이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거의 동시적·상호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정치체 내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갈등이 잘 제도화 된다면 오히려 체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법과 제도도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⁶² 따라서 갈등과 그것의 제도화, 그리고 다시 터져 나오는 갈등을 통해 그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선순환이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체제는 위기 국면에 처하게 된다.

⁶²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키아벨리가 언급하는 것으로는 국가가 팽창하는 것,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것, 인간들의 악한 본성이 발현하여 부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현상 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로마사 논고』 2권 19장에서 자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국가가 다양한 시민들 사이에 잡다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당파적 증오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오는 합법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배출구를 갖지 못할 때 공화국 전체를 몰락시키는 불법적인 방식을 취하게 된다(D I. 7).

마키아벨리가 당파적 증오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적대감은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문제였다. 게다가 이러한 적대감의 표출로 생겨나는 당파적 갈등은 곧 상호 견제라는 기능을 발휘하며 체제의 자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음을 역설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적대감이 합법적으로 표출되고, 갈등이 제도 안으로 수렴될 수 있을 때의 경우이다. 기존의 제도가 새롭게 생겨난 당파적 증오심이나 적대감을 표출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의 수정이나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의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러한 당파적 증오는 필연적으로 다른 표출구를 찾게 되고, 그러한 표출은 보통 제도 외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제도의 효력 상실은 ‘경쟁’ 차원의 갈등을 ‘적대’ 차원의 갈등으로, 자연스러운 당파를 파당과 파벌로 변질시킨다. 3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당과 파벌은 갈등이 부정적인 양상으로 흐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파당과 파벌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이 부정적인 양상을 띠게 하는 것일까?

개인과 개인 간에 피해가 속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피해는 공포를 낳고, 공포는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를 낳고, 이는 파벌로 발전한다. 파벌로부터 국가의 당파가 생기고, 이로 인해 국가는 파멸된다(D I. 7).

공포는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를 낳고, 법과 제도에 의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인간은 재력이나 권력에 기반한 사적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즉, 인간의 욕망과 그들 사이의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공적 영역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자연히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파벌이다. 파벌이 생겨났다는 것은 체제의 구성원들이 이미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이미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견제’ 능력을 상실하여 갈등이 더 이상 ‘경쟁’ 차원에서 유지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파벌의 위험성은 그것이 체제의 부패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에 있다.⁶³ 파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체제의 파멸을 가져오는 지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크게 두 가지 루트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제도의 효력 상실로부터 생겨난 파벌이 그러한 제도의 효력 상실을 가속화 시킨다는 점이다.

명성이 위에서 언급된 또 다른 방법인 사적인 방법을 통해 얻어졌을 때, 그것들은 몹시 위험하고 전적으로 유해하다. … 이것들은 사람들을 시혜자의 파당으로 만들고,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을 부패시키고 법을 위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다(D III. 28).

마키아벨리는 법을 지키지 않는 선례가 생기는 것을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나쁜 이유는 그것이 자유의 적절한 존중에 상처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법의 위반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D I. 45).

⁶³ “파벌로부터 국가의 당파가 생기고, 이로 인해 국가는 파멸된다.”(D I. 7)

이러한 선례는 체제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런 사회에는 법을 위반하고 사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만연하게 된다. 마키아벨리가 임시 독재 집행관 제도가 탁월한 제도였다고 여기는 이유도 이러한 논의의 흐름 위에 있다. 그는 정체에는 언제나 예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놓지 않으면 완전한 공화국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만약 초법적으로 밖에 다룰 수 없는 사건이 공화국에 발생한다면, 초법적 조치가 당시에는 공화국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그러한 선례 자체가 향후 공화국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을 위한 법률의 파기였지만, 이는 곧 나쁜 목적을 위한 법률의 파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마키아벨리는 경고한다(D I. 34). 따라서 법률 위반의 선례로 시작되는 파벌은, 곧 법률을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 사이에 만연하게 하며 제도의 효력 상실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로 내부적인 파벌 싸움은 체제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제 자신의 견해는 분열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벌로 얼룩진 도시는 적군에게 위협을 받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세력이 약한 파벌은 항상 침략자와 결탁하는 데에 반해 다른 파벌도 이를 저지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P 20).

마키아벨리가 법을 위반하는 선례만큼이나 정체에 위험하다고 여긴 것은 외세를 끌어들이는 행위였다. 파벌 싸움이 발생하고, 그러한 상호 증오심 또는 울분 등의 감정이 제도 내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보통 한 측은 외국 세력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일이 피렌체에서 일어났는데, 피에로 소데리니(Piero Soderini)의 사악한 행동이 시민들을 노엽게 했지만, 그를 탄핵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방도가 당시 피렌체 공화국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노여움을 해소하기 위해 에스파냐 군대를 불러들일 수 밖에 없었다(D I. 7). 그러나 외국 세력의 개입은 분열을 가속화시킬 뿐 분열과 파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외국 세력을 개입시켰다는 것은 이미 체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포기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마키아벨리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여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가 야만인들을 이탈리아에 불러들였다는 점에 있다.⁶⁴ ‘경쟁’ 차원에서 갈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각 집단 또는 계급이 자신들의 우모리 충족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견제를 통한 체제의 자유 수호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대의 우모리가 중요하지 않은 ‘적대’ 차원의 갈등은 오직 자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그러한 권력 독점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주체성도 얼마든지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끌어들이는 외세는 필연적으로 자신과 대립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던 자유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파벌 이외에, 구성원들이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한 공화국에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치적 주체성을 유지한다는 것, 즉 체제의 자유가

⁶⁴ “그리하여 이탈리아는 많은 군주와 영주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이탈리아의 내분과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강력한 야만인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 쳐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손쉽게 이탈리아를 약탈할 수 있게 되었다”(D I. 12).

수호되고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는 것은 곧 능력이 있는 자가 합당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고, 그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가 필요한 순간에 지지를 보내는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하여 오직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인 ‘적대’ 차원으로 갈등이 치닫는 상황에서, 탁월한 인물은 오히려 시기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물들은 곧 야심을 품은 자들의 속셈으로 인해 적으로 간주된다(D II. 22).

사람들은 널리 퍼진 자기 기만을 통해 선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공공선보다는 대중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추천된 어떤 사람들을 추종하게 된다(D II. 22).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상대를 억압할 수 있는 리더일 뿐이며, 그들에게 공공선을 목표로 하거나 체제의 발전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다. 따라서 정치적 주체성의 상실은 공화국에 필연적으로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제도의 효력 상실과 구성원들의 정치적 주체성 상실은 곧 파벌이나 견제력 상실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며 체제를 부패하게 만들고 이는 중국에는 국가를 파멸시킨다는 점에서 혁신이 필요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 혁신과정과 갈등의 역할

마키아벨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제에 부패와 악이 생겨나는 것을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치체가

부패와 위기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한다면 체제는 몰락하지 않고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완전히 부패한 곳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이든, 체제의 외양은 유지하되 내부적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든, 마키아벨리의 동태적 정치관에서 혁신 또는 개혁은 정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개혁을 행할 수 있는 일인의 리더이다.

일반론으로 우리는 이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한 인물에 의해 조직되지 않는다면, 어떤 공화국이나 왕국도 처음부터 잘 조직되거나 예전의 제도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철저히 개혁되는 경우란 거의 없거나 결코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오직 한 인물만이 그러한 방법을 도모할 수 있고 그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은 필연적이다(D I. 9).

줄곧 인민의 정치 참여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갈등이 정치체의 자유와 지속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펼치던 마키아벨리가, 왜 개혁의 과정에서는 단호한 어조로 한 인물에 의한 혁신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일인의 혁신 리더를 과연 어떤 인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키아벨리가 바라보는 건국 또는 개혁 등 체제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은, ‘어떤’ 유형의 체제를 만들고 ‘어떤’ 방식의 제도를 창설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그는 명백히 여타 다른 정부 형태보다 혼합정의 형태가 우월함을 주장해왔으며, 다수 인민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저변이 넓은 정체(governo largo)’가 지향점이 되어야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변화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에게 개혁의 과정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여 토론을 통하여 국가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변이 넓은 정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도화 해나가는 것이었다.⁶⁵ 혁신리더는 바로 ‘저변이 넓은 정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와 역량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인지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라면, 그가 혁신 과정에서 행하는 독단적인 행동도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하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견해는 그가 로물루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물루스는 자기 동생과 협력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용서받을 만한 인물에 속했다. 그가 한 일이 그 자신의 야심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 행해진 일이었다는 점은, 그가 즉각적으로 원로원을 창설한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그 후 그는 원로원과 협의하였고, 원로원의 의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로물루스가 자신을 위해 남겨 놓은 권한을 잘 관찰한 사람은, 전시에 갖는 군대통수권과 원로원을 소집할 권한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그에게 남겨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D I. 9).

⁶⁵ 이는 군주국 건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키아벨리는 크게 군주국을 건설하는 방법 또는 군주가 되는 방법으로, 타인의 무력과 호의를 이용하는 경우와 자신의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운명(fortuna)에 의한 경우와 역량(virtú)에 의한 경우, 일개 시민이 전적으로 사악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권력을 장악한 경우와 동료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통치자가 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일개 시민이 동료 시민들의 호의와 지지에 의해 군주국 된 사례의 경우는 다시 인민의 호의에 의한 방법과 귀족의 호의에 의한 방법으로 나뉜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 중에서 마키아벨리가 가장 바람직한 건국의 방법으로 꼽는 것은 개혁자들이 자신의 힘과 역량에 의존하여 호의적인 인민들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방법들에 비해 자신의 힘과 역량, 그리고 인민에 의지해 세워진 체제야말로 강력한 군주권력을 통한 좋은 공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며, ‘저변이 넓은 정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물루스는 마키아벨리가 혁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전형적인 일인의 혁신 리더이다. 그는 혁신 과정에서 자신의 협력자는 물론 친동생마저 죽일 정도로 냉혹한 인물이었지만 마키아벨리는 로물루스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그로 하여금 잔혹한 마키아벨리라는 평가를 받는 데 일조하였지만,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키아벨리가 로물루스를 왜 긍정적인 혁신 리더로 평가했느냐 하는 점이다. 그는 이런 평가에 대한 근거를 로물루스가 원로원이라는 제도를 창설한 행위에 두고 있다. 로물루스가 완벽한 혼합정의 형태를 만드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창설한 원로원이 정체의 저변을 좀 더 넓혀나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로물루스는 훌륭한 개혁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탁월한 혁신리더가 어떤 체제가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가 항상 성공적인 개혁자가 될 수는 없다.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에 더불어 일인의 리더에게 집중된 권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혁신 리더를 평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한 또 다른 문제는, 그가 개혁을 하는 동안 모든 권한을 자신의 수중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따라서 무릇 공화국의 신중한 건설자로서 그 의도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을 추구하고자 하고, 자기 자손이 아니라 공동의 조국을 염두에 둔 자는 모든 권위를 자기 수중에 넣기 위해 애써야 한다(D I. 9).

이미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지 정해진 상태에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불필요한 일이었으며,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제도와 통치양식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마키아벨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본 것은 정치체 내에서 다양한 집단이 갈등 속에서 만들어내는 상호 견제를 통하여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견제와 균형이 체제의 자유와 체제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습과 문화를 창출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혁신이 필요한 상황의 의미하는 것은 정치체 내의 구성원들이 갈등을 통한 상호 견제 및 균형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어떤 집단은 권력과 권한을 독점하고 또 다른 집단은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한 채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개혁의 주체는 이미 부패해 있는 구성원들이 될 수는 없으며, 무질서를 제어하기 위해 기득권의 전횡을 제압하고,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한 다수에게 다시 정치적 주체성을 되돌려놓는 역할은 혁신리더의 몫인 것이다.

권한을 손에 넣지 못한 리더는 개혁을 이뤄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고 위험하며 성공하기 힘든 일은 없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질서로부터 이익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이 개혁자에게 적대적이 되는 반면, 새로운 질서로부터 이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기껏해야 미온적인 지지자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온적인 지지만 받는 이유는 잠재적 수혜자들이 한편으로 과거에 법을 일방적으로 전횡하던 적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회의적인 속성상 자신들의 눈으로 확고한 결과를 직접 보기 전에는 새로운 제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혁신자를 공격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전력을 다하여 공격하는 데에

반해서, 그 지지자들은 오직 반신반의하며 행동할 뿐입니다. … 그들이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개혁을 주도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으면, 그들은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P 6).

권한을 모두 손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이루어낸 개혁을 강제적으로라도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개혁이 구성원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권한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혁신이 아니라 체제에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불러올 뿐이다. 심지어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혁신 군주는 개혁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위험도 가지고 있다.

아기스는 스파르타인들을 리쿠르고스의 법률이 설정한 한도 내로 되돌려놓고자 했다(그 이유는, 그가 보기에는 스파르타인들이 그 한계로부터 너무나 벗어나 국가가 이전의 활력을 상실하고 나아가 그 권력도 권위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에 착수하자마자 그는 스파르타의 감독관들에 의해 참주정을 도모하려는 인물로 지목되어 살해되었다(D I. 9).

권한을 모두 소유한 '혁신군주'라는 단어는 제왕적 권력을 가진 독재자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일인의 개혁 군주를 논함에 있어서 중시하는 리더의 모습은 그러한 제왕적 권력과는 거리가 멀며, 『군주론』에 등장하는 군주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가 공화국의 리더뿐만 아니라 군주정이나 왕국의 황제나 군주를 논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인민에게 사랑 받고 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심지어 마키아벨리가 정체의 안정에 있어서 강조해 마지않는

자국민으로 이루어진 군대 보다 그가 더 체제에 안정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군주에 대한 인민의 사랑이다.

공화국에서 지도자가 된 자는 로마가 제국이 된 후 법률에 따라 훌륭한 군주로서 처신한 자들이 그 반대로 산 자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티투스(Titus), 네르바(Nerva), 트라야누스(Trajanus), 아드리아누스(Adrianus), 안토니우스(Antonius), 마르쿠스(Marcus) 등의 황제들이 근위병이나 대규모의 호위 군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품성, 인민의 선의, 원로원의 사랑이 그들을 방어했던 것이다(D I. 10).

이들과는 반대로 독단적이고 전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리더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명백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참주정치의 시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국이나 왕국을 건설하여 영구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자들도 참주정치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 그들은 이러한 결정에 의해 마음의 만족과 함께 얼마나 많은 명성, 얼마나 많은 영광, 얼마나 많은 명예, 안전 및 평온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지, 그리하여 얼마나 커다란 악명, 비난, 책망, 위험 및 분란을 겪게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D I. 10).

따라서 일인이 모든 권력을 소유했다는 점에서 혁신리더와 참주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지만, 특별히 ‘저변이 넓은 정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역량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혁신리더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정의라는 점에서 두 리더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게다가 마키아벨리는 리더가 “인민들의 삶을 오랫동안 규율 해온 법과 전래의 관습 및 관례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확실히 마키아벨리가 내세우는 혁신군주가 결코 구성원들에게 전제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리더는 아니었던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마키아벨리에게는 개혁이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존재했다. ‘건국’ 또는 ‘개혁’, 즉 법과 제도를 새롭게 창설하고 사회의 부패를 종식시키는 행위는 언제나 ‘체제와 구성원들이 자유를 누리는 상황에서 오래 지속하는 것’, 즉 ‘위대함의 성취’와 일맥상통하는 문제였다. ‘저변이 넓은 정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대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혁신이 아니었다. 이는 공화정에 비해 리더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군주정을 ‘건국’ 하거나 ‘개혁’ 하려는 자에게도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공화정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대함’의 성취, ‘자유와 지속의 문제’는 군주정과 공화정에서 공히 가장 핵심적인 체제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귀족과 인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독단적 권력을 행사하는 군주는 자신 또는 체제의 몰락을 불러오는 참주일 뿐이지 마키아벨리가 칭하는 혁신군주가 아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빛어지는 ‘갈등’의 의미와 역할을 잘 인지하여 ‘저변이 넓은 정체’를 지향하고, 그것을 제도로 정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가 마키아벨리가 칭한 혁신군주인 것이다.

앞서 마키아벨리가 체제가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상황, 즉 위기에 처한 상황을 법과 제도가 효력을 상실하고, 좋은 관습과 문화가 사라지며, 구성원들이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의 결과로 체제에 나타나는 것은 적대 차원의 갈등인 분열이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분열의 제거를 혁신의 목표로 여긴 것은 아니다.

이 시민들은 미래에 발생할 파벌의 원인을 없애기 보다는 현존하는 파벌을 제거하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썼다. 결국 그들은 두 목표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파벌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던 파벌이 다른 것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결국 공화국에 위험을 증가시켰다(IF III. 6).

분열을 제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만을 치료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지 못하면 분열은 계속해서 생겨나게 마련이며, 갈수록 더 강해지면서 중국에는 공화국을 파멸로 이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혁신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패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열이 아니라 부패해버린 주체들인 법과 제도, 관습, 그리고 정치 구성원들이다. 따라서 혁신의 목표는 부패해버린 혁신의 대상을 다시 시초의 좋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 즉 법과 제도가 다시 효력을 가지고 공공선을 위해 제정되며, 좋은 관습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다시 정치적 주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체제를 개혁하는 리더가 개혁의 핵심으로 인지해야 했던 문제는 무너진, 갈등을 통한 상호 견제 능력이었다.

질서가 잡힌 국가와 현명한 군주는 귀족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또 인민이 만족하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군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왕국을 개혁한 사람은 귀족들의 야심과 거만함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귀족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인민이

귀족을 두려워하고 미워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견제 역할을 ... 중립적인 제 3 의 심판기관을 내세워 귀족들을 견제하고 인민들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P 19).

이는 각 구성원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되돌림으로써 복원시킬 수 있었으며, 단순히 귀족과 인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 사이의 힘의 균형은 물론이거니와 리더 역시 항상 스스로의 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귀족들이 분노하거나 인민이 불만족스러워 할 상황이 오는 것을 경계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호 견제와 그에 따른 갈등을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혁신리더가 개혁 과정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었다.

혁신은 리더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이 어떤 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혁신 과정에서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배하는 방식과 후계자를 뽑는 방식 역시 개혁 과정에서 제도화 시켜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국가의 건국에는 단지 한 인물이 적합하다 해도, 일단 조직된 정부는 그것을 유지하는 부담이 단지 한 사람의 어깨에만 걸려 있다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D I. 9).

마키아벨리는 건국과 혁신의 과정이 일인의 리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후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즉 혁신 과정에서 리더에게 집중된 권력을 제도를 통해 다시금 정치체 내의 구성원들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는 참주로 전락하여 권력을 잃기 쉬우며 혁신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혁신군주라는 행운을 가진 체제가 혁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혁신군주가 죽은 후의 상황 역시 계속해서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행운이 연달아 일어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혁신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계속해서 유능한 리더를 어떻게 출현시키느냐에 달려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체제의 위대한 업적은 두 명의 유능한 군주가 연이어 즉위했을 때 산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D I. 17).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유능한 리더를 연이어 즉위시키느냐가 혁신 성공의 관건이 된다.

로마는 ... 곧 유약하거나 사악한 왕이 권좌에 오를 경우 발생하게 마련인 위험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권위의 무게가 집정관에게 실리게 되었으며, 집정관은 세습이나 기만 또는 격렬한 야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통치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항상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D I. 20).

공화국의 경우에는 선거라는 방법이 단순히 연이은 두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유능한 지도자가 잇따라 집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능한 지배자의 승계는 잘 정비된 모든 공화국에 항상 가능하다(D I. 20).

마키아벨리가 군주정을 역시 선한 정부라 여기고, 군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애했음에도 공화정을 가장 안정적이며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는 체제라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화국은 군주국에 비해 유능한 리더를 배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역시 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치 구성원들의 갈등과 그들의

상호 견제에 있다. 리더가 세습이나 기만, 또는 격렬한 야심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그 정치체는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다양한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권력의 균형점을 찾으며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에서 야심이나 기만은 좀처럼 발을 들일 곳이 없다. 게다가 공화정은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통치자의 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습 군주정보다 훨씬 더 유능한 인물이 통치자의 지위에 오르는 것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리더로 뽑히게 되는 지에 대한 문제를 잘 설계해 놓는 것은 개혁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마키아벨리가 한 인물에 의한 쇄신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복원과 구성원들의 정치적 주체성 회복만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는 것은 비단 법과 제도, 사람만이 아니며, 문화 역시 그 체제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관습과 문화의 부패를 막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탁월한 개인의 모범적 처신을 들고 있다.

공화국을 시초로 되돌리는 이러한 조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어떤 법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단지 한 사람의 탁월함에 의해 성취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커다란 평판을 누리고 그의 모범적 처신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이들은 비범하고 고귀한 모범적 처신을 통해 좋은 법이나 관습이 초래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로마에 가져왔던 것이다. 만일 내가 앞에서 언급한 법 집행의 사례가 이러한 개인들의 모범적 처신과 함께 로마에 적어도 10 년마다 한 번씩 나타났더라면, 그 필연적인 결과로 로마는 결코 부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공동체가 시초에 가졌던 평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외부적 사건에 의존하지 않고 좋은 기율이나 좋은 인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거보다 더 필요한 일도 없다는 것이다(D III. 1).

이러한 개인의 모범적 처신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커다란 평판을 누리게 됨으로써 그러한 개인이 계속해서 모범적 처신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 때문이다. 마키아벨리가 갈등을 중시했던 만큼 그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삼았던 것은 체제 내 분열이었다. 그는 체제 내 구성원들의 우모리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러한 우모리를 충족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성 사이의 충돌로 야기되는 갈등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각각의 우모리 충족이 체제의 목표인 자유와 지속성의 유지라는 큰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큰 목표를 공유할 때에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체제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및 그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각각의 우모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집단들에게 체제의 자유와 지성은 자신들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체제의 자유와 지속성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서슴없이 벌일 수 있다. 이러한 예가 바로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이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데 이용하려다 자신들의 자유마저 상실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자유와 지속에 기여하는 개인의 모범적 처신은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공동체의 자유와 지속이 자신들의 중요한 목표임을 인지할 수 있는 지속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체제의 큰 틀에서의 목표를 위해 일치 및 단결하는 내부 구성원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개인의 모범적 처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인민은 좋은 것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에 현혹되어 자주
그들 자신의 파멸을 스스로 초래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납득시키지 않는다면, 무수히 많은 위협과 손실이 공화국에 닥치게 마련이다(D I. 53).

만약 원로원이 영향력 있고 위엄이 있는 인물을 통해 인민들의 분노를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소동을 초래했을 것이다(D I. 54).

탁월한 개인은 위기 상황이 더 큰 위기의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 쇠신을 통해 다시금 체제의 자유와 지속의 중요성을 구성원들이 인지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적대 차원의 분열이 아닌 경쟁 차원의 갈등을 지속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마키아벨리가 혁신의 궁극적 목표로 삼은 것은 그 이전 단계의 정부 형태가 무엇이었던 간에 '저변이 넓은 정체'인 공화정을 수립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비록 '개혁에는 제왕적 권력이 필요불가결 하다'(D I. 55)는 언급으로 개혁의 시작을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혁 상황에서 리더가 창출해야 하는 법과 제도의 형태를 비롯하여 혁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표와 행위들은 모두 구성원들의 참여와 견제,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갈등이 정치체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의 복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현대적 합의

안정과 조화가 여전히 덕목으로 여겨지던 중세의 정치질서 하에서, 마키아벨리는 갈등이 정치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임을 인식하며 근대 정치철학의 시작을 알렸다. 갈등이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되던 상황에서, 마키아벨리는 고대 로마의 자유와 강성함의 원동력이 바로 갈등에 있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모든 갈등이 다 체제에 긍정적 효용을 가져온다고 여긴 것은 아니었다. 갈등은 상대에 대한 증오와 반감이 상대를 정치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형태로 치닫는 '적대'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개별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것에 합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되 상대의 존재 역시 용인하는 '경쟁' 차원으로 전개될 때 그 효용을 가진다.

마키아벨리의 갈등과 관련한 기존 논의에서 갈등은 보통 귀족과 인민 양자간의 갈등으로 여겨졌지만, 리더 역시 갈등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소유한 리더는 언제든지 구성원들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체제의 자유마저 침해할 수 있는 참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에, '권력이 견제 받고 있는가'의 문제는 체제의 갈등이 '경쟁'적인 형태로 전개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저변이 넓은 정체'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참여와 갈등을 통해 상호 견제력이 지속적으로 정체 내에 존재할 때 공화국은 구성원들이 광범위한 자유를 향유하는 상태에서 더 오래 지속하는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의 갈등 논의가 그 독창성을 가지는 부분은, 그가 단순히 갈등을 정치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해 갈등을 그것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즉, 갈등은 체제가 자유롭게 유지되는 것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도와 구성원들의 부패로 인한 체제의 위기 상황을 개혁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갈등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인식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 넘어 오늘날 우리의 정치현실의 여러 문제와 위기 상황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담론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다. 사회 통합과 안정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경향은 선호의 집약을 정치가 지양해야 하는 목표로 여기게 만들었다. 게다가 70-80년대 국가 주도의 개발 독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합의는 공공선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비판과 논쟁은 그 설 자리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갈등이 불가피하고 일견 당연하기까지 한 민주정치에서 선호 집약에 치중하는 것은 심의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오히려 마키아벨리가 우려한 파벌과 파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그리고 이러한 파벌과 파당은 필연적으로 체제에 '적대' 차원의 갈등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편가르기 식 정치가 난무하고 갈등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 제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 분열을 가져오는 상황이, 오늘날의 정치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갈등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여기며 빠르게 선호를 집약하는 것이나 소수의 인물에 의한 '대표'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광범위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갈등을 용인하고 그것이 '경쟁'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제도의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는 갈등 자체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 부분 그것의 양상이 적대적인 분열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에 기인한다. 마키아벨리 역시 적대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갈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로마 몰락과 피렌체 위기의 원인이라는, 명백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이 부정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해서 그가 갈등 자체를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물론 마키아벨리 역시 인민의 정치 참여가 체제에 적지 않은 혼란과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는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된 '저변이 넓은 정체'가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이는 그가 다양성이 존재하는 정체만이 위기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타개해나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의 민주정치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적대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어떻게 경쟁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지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전환에 제도와 문화, 그리고 구성원들-리더, 정치 엘리트, 그리고 시민-의 비르투가 모두 필수적임을 주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민들의 정치 참여를 통한 정치적 주체성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민주정치는 그 스스로 갈등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1987년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 2004년 미국과의 외교 협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촛불집회나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노사모의 활동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대중의 이러한 참여와 관심을 민주정치 성숙의 원동력으로 삼지 못하고, 선동적이고 감정적인 동원의 결과물로 인식하거나 사회 불안정을 촉발하는 위기의 원인으로 보아 왔다. 이에 따라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에 '포폴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논하고 있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대중의 정치 참여를 사회의 분열과 불안정의 원인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갈등을 오히려 위기의 타개와 정치 성숙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를 통한 '저변이 넓은 정체'가 우리 사회가 민주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를 성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와 갈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민주정치는 언제나 “투쟁의 장”이었으며, 오히려 “그러한 투쟁이 역사적으로 정치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에 존재하는 안정은 항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쟁하는 세력들 사이의 “실용적인 타협”에 의한 일시적 안정일 뿐이다(Mouffe 2000). 따라서 민주정치의 위기를 개혁하는 일은 민주정치 내 갈등의 본질과 그것의 효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정치 현상에서 갈등의 필연성과 그것에 내재한 견제력을 통해 갈등의 효용적 측면을 직시한 마키아벨리의 논의가, 우리 사회 민주정치가 내재적으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마키아벨리의 저작]

- Machiavelli, Niccolò. 1950. *The Prince and the Discourses*. ed. Max Lerner. New York: Random House.
- _____. 1970. *The Discourses*. ed. Bernard Crick. Harmondsworth: Penguin.
- _____. 1988. *The Prince*. eds. Quentin Skinner and Russel Pr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Machiavelli: The Chief Works and Others*. 3 vols. trans. Allan Gilbert.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The Art of War*. Intro. Neal Wood. New York: Da Capo Press.
- _____. 1992. *The Prince*. ed. Robert M. Adams. 2nd ed. New York: Norton.
- _____. 1996. *Discourses on Livy*. trans. and eds. Harvey Mansfield and Nathan Tarcov.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7. *Discourses on Livy*. trans. Julia Conaway Bondanella and Peter Bondanell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강정인·안선재 역. 『로마사 논고』. 파주: 한길사.
- _____. 2007. 황문수 역. 『군주론/정략론』. 서울: 동서문화사.
- _____. 2008. 고산 역. 『마키아벨리 로마사 이야기』. 서울: 동서문화사.

- _____. 2008. 강정인·김경희 역. 『군주론』. 서울: 까치.
- _____. 2011. 이영남 역. 『마키아벨리의 전술론』. 서울: 스카이.

[국내 문헌]

- 강정인. 1993. “서론: 마키아벨리의 사상.” 켄턴 스키너 외 저. 강정인 편역. 『마키아벨리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강정인·김용민·황태연. 2007.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 서울: 책세상.
- 곽준혁. 2003. “갈등, 혼합정체, 그리고 리더십: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9, 171-194.
- _____. 2004. “『로마사 논고』에 기술된 정치변동의 수사적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38:3, 29-53.
- _____. 2005a.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한국정치학회보』 39:3, 33-57.
- _____. 2005b.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국가전략』 11:2, 141-168.
- _____. 2007. “키케로의 공화주의.” 『정치사상연구』 13:2, 132-154.
- _____. 2008a. “왜 그리고 어떤 공화주의인가.” 『아세아연구』 51:1.
- _____. 2008b. “『로마사 논고』에 기술된 민주적 권위(autorità).” 『한국정치학회보』 42:2.
- _____. 2008c.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Citizenship).” 『대한정치학회보』 16:2, 127-149.

- _____. 2009a. “열망의 정치: 마키아벨리와 고전적 공화주의.”
『대한정치학회보』 17:2, 187-211.
- _____. 2009b. “공화주의와 한국사회: 필립 페릿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연구』 52:1, 103-141.
- _____. 2009c.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샬탈 무페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연구』 52:3, 129-186.
- 김경희. 2005a. “비르투 로마나(Virtù romana)를 중심으로 본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9:1, 25-45.
- _____. 2005b. “마키아벨리의 국가전략: 저변이 넓은
정체(governo largo)에 기반한 힘과 유연성의 전략.”
『정치사상연구』 11:1, 133-151.
- _____. 2008. “마키아벨리의 선정론(buon governo)-
『군주론』에 나타난 건국과 치국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42:3, 51-73.
- _____. 2009. 『공화주의』. 서울: 책세상.
- _____. 2011. “‘독존’에서 ‘공존’으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해석에 대한 일고찰.” 『한국정치연구』 20.
- _____. 2012. “국가와 공공선/공동선.” 『정치사상연구』 18:1,
33-52.
- 김동규. 2000. “사회갈등 보도의 바람직한 방향 찾기.”
『한국언론학회보』 45:1.
- 김성국. 1984. “노사갈등의 구조와 역사적 전개.” 『한국사회학』
18:1, 152-183.
- 김영중 외. 1999. “한국의 사회적 갈등구조와 그 해결방안.”
『한국 부패학회보』 3, 125-146.
- 김영평. 2002. “정책갈등의 양상과 갈등 관련자의 윤리적 대응.”
『정부학연구』 8:2, 113-143.

- 김일철. 1984. “사회발전과 갈등.” 『한국사회학』 18:1, 135-151.
- 문석남. 1984. “지역격차와 갈등에 관한 한 연구: 영·호남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18:1, 135-151.
- 박길성. 2003. “외환위기와 사회적 비용: 삶의 질, 사회갈등, 신뢰구조.” 『비교사회학』 5, 105-128.
- 박상섭. 2002. 『국가와 폭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상필. 2000.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2, 121-138.
- 박영철. 1996. “마키아벨리의 시민갈등론.” 『동국사학』 30, 567-594.
- 박천오·서우선. 2004.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38:4, 107-124.
- 배응환. 2005. “로컬거버넌스: 갈등에서 협력으로.” 『지방행정연구』 19:2, 187-215.
- 변상정. 2004. “정부의 사회갈등 해소노력과 정책적 고려사항: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14:3, 65-117.
-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 서병훈. 2008. 『포폴리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서울: 책세상
- 신철희. 2011. “정치와 종교, 그리고 민: 마키아벨리와 스피노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2, 339-362.
- 심영희. 1984. “사회갈등과 사회통제: 이론적 조망.” 『한국사회학』 18:1, 230-250.
- 안병진. 2008.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한 공화주의자의 시각.” 『아세아연구』 51:1, 164-193.

- 안성민. 2000.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유해운 외. 2001.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선학사.
- 유홍립. 2003. 『현대 정치사상 연구』. 고양: 인간사랑.
- 이병량·김서용·전영평. 2008.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49-
72.
- 이영희. 2004. “민주화와 사회 갈등: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이해.” 『동향과 전망』 61, 36-67.
- 이효선. 1984. “학원의 갈등: 그 성격과 대응.” 『한국사회학』
18:1, 210-229.
- 임혁백. 1994. 『선진형갈등해결기제의 모색. 시장, 국가,
민주주의』. 서울: 나남.
- 이혜진. 2010. “마키아벨리의 갈등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상환. 1997.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갈등의 본질.”
『당대비평』 1, 202-225.
- 정건화. 2008.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동향과 전망』
71, 11-50.
- 주재복. 2001.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서울시와 경기도 상수도 분쟁.” 『한국정책학회보』 10:1, 141-
163.
- 진원숙. 1995. “마키아벨리의 계급대립론,” 『계명사학회』 6,
137-177.
- _____. 1996. 『마키아벨리와 국가이성』. 서울: 신서원.

최연홍·오영민. 2004. “정책수용성의 시간적 변화: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 갈등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3:1,
297-333.

[외국 문헌]

- Althusser, Louis. 1995. “Machiavel et nous.” *Écrits Philosophiques et Politiques*. ed. Stock/IMEC. 오덕근·김정한 역. 2001. 『마키아벨리의 가면』. 서울: 이후.
- Anglo, Sydney. 1969. *Machiavelli: A Dissection*. New York: Harcourt, Brace&World.
- Baron, Hans. 1988. *In Search of Florentine Civic Humanism: Essays on the Transition from Medieval to Modern Toni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nadeo, Alfred. 1973. *Corruption, Conflict and Power in the Works and Times of Niccolo Machiavell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ck, G & Skinner, Q & Viroli, M. 1990. *Machiavelli and Republican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sche, Roger. 1996. *Theories of Tyranny from Plato to Arendt*.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Coby, J. Patrick. 1999. *Machiavelli's Romans: Liberty and Greatness in the Discourses on Livy*. Lanham, Md.: Lexington Books.
- Coser, Lewis. 1956.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박재환 역. 1982. 『갈등의 사회적 기능』. 서울: 한길사.

- Dahrendorf, R.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정대현 역. 1988. 『산업사회의 계급과 계급갈등』. 서울: 기린원.
- Dietz, Mary G. 1986. “Trapping the Prince: Machiavelli and the Politics of Decep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3, 777–799.
- Donald R. Kelly. 1988. “The Theory of History.” *The Cambridge History of Renaissance Philosophy*. ed. Charles B. Schmitt and Quentin Skinn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bert, Felix. 1977. *History, Choice and Commit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4. *Machiavelli and Guicciardini: Politics and History in Sixteenth-Century Florenc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Gramsci, Antonio. 1992. Joseph Buttigieg ed, *Prison Notebooks vol. 1*. London: Lawrence & Wishart. 이상훈 역. 1999. 「현대의 군주」. 『옥중수고 1』. 서울: 기획출판 거름.
- Laborde, Cecile · Maynor, John. 2008.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Balckwell Publishing Ltd.
- 곽준혁 · 조계원 · 홍승헌 역. 2009.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서울: 까치글방.
- McCormick, Jonn. 1993. “Addressing the Political Exception: Machiavelli’s ‘Accidents’ and the Mixed Regim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4, 888–900.

- _____. 2001. “Machiavellian Democracy: Controlling Elites with Ferocious Popu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2, 297–313
- Mouffe, Chantal. 1993.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이보경 역. 2007. 『정치적인 것의 귀환』.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00. *The Democratic Paradox*. London: Verso. 이형 역. 2006. 『민주주의의 역설』. 고양: 인간사랑.
- _____. 2005. *On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 Münkler, Herfried. 1994. “Republikanische Tugend und Politische Energie: Die Idee der virtù im politischen Denken Machiavellis.” In Michel Th. Greven, Hrsg. *Politikwissenschaft als kritische Theorie: Festschrift für Kurt Lenk*, 97–107. Baden–Baden: Nomos Verlag.
- Parel, Anthony J. 1992. *The Machiavellian Cosmo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Pettit, Philip. 1997.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Pitkin, Hanna Fenichel. 1984. *Fortune is a woma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cock, J. G. A. 1975. *The Machiavellian Mo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광차섭 역. 2010. 『마키아벨리언 모멘트1, 2』. 서울: 나남.
- Polybius. 1979. *The Histories*. Trans. Gioconda Savini. London: Robert Hale Ltd.
- Sasso, Gennaro. 1965. *Niccolo Machiavelli: Geschichte seines*

- Politischen Denkens*.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 Skinner, Quentin. 1991. "Two Views on the Maintenance of Liberty." Philip Pettit ed,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New York: Macmillan. 35-58.
- _____. 1997. *Liberty Before Libe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조승래 역. 2007. 『퀸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서울: 푸른역사.
- _____. 2001. *Machiavell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강정인·김현아 역. 2010. 『마키아벨리의 네 얼굴-군주론 너머 진짜 마키아벨리를 만나다』. 서울: 한겨레출판.
- _____. 2004. 박동천 역.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1』. 서울: 한길사.
- Strauss, Leo. 1958. *Thoughts on Machiavelli*. Free Press. 함규진 역. 2006. 『마키아벨리』. 서울: 구운몽.
- Sullivan, Vickie. 1996. *Machiavelli's Three Romes: Religion, Human Liberty, and Politics Reformed*. Delkb. Illinoi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Viroli, Maurizio. 2006. 김경희·김동규 역. 『공화주의 (Republicanism)』. 고양: 인간사랑.

[기타 자료]

- “한국 사회갈등으로 GDP 27% 손실” , <헤럴드 경제>, 2009. 6. 24.
- “Person of the Year” , <Time>, 2011. 12. 14.

Abstract

Machiavelli and the Politics of ‘Conflict’

Park, Hye-ji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give insight into the biased view of political conflicts in Korea and to examine its implication on Korean political society in view of Machiavelli’s interpretation of conflict in politics. More specifically, it will carefully reinterpret and restructure Machiavelli’s argu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conflict. Contrary to emphasizing ‘consensus’ in politics, which was the predominant view in the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up to his time, Machiavelli regarded civil conflict not only as inevitable in politics, but also as a result of politic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him, conflicts were the driving force for the achievement of liberty and greatness of Rome. Laws and institutions lose their effects when situation changes. However, they are open to modification in a positive way as a result of a conflict. Also, conflict enables people to keep their political independence, which is necessary for civil contestability.

There are three important aspects of Machiavelli's understanding of conflict, which have been ignored in previous studies. First, the 'leader' should also be considered an important political actor involved in conflicts along with *grandi* and *popolo*. Second, various forms of conflicts discussed in his works should be systematically distinguished. Lastly, conflicts not only play a role in managing the state, but are also a vital part of reforming the state.

This study classifies the various conflicts in Machiavelli's works, by using Chantal Mouffe's framework, into two forms of conflict, i.e., antagonistic and agonistic conflict. This framework is used to distinguish whether conflicts are positive or negative. Conflicts Machiavelli considered as positive were agonistic, not antagonistic ones. Agonistic conflicts consist of 'independent actors'—including the 'leader,' which is excluded from previous studies of Machiavelli's conflicts—and 'contestability' that exists between the actors. This study also emphasizes the positive aspect of conflicts as a transformative force that reforms the corrupt state.

There are two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its intention is to criticize the general opinion that conflicts in any forms are harmful to political society. Even though there is consensus about the importance and unavoidable need of conflict in politics, it is still considered to be a

social problem. On this argument, the study would help us realize that conflicts are not a problem, but a process and context within which we can cope with concrete problems of the day. Therefore, we are obliged to concern ourselves with how to manage the conflict to our advantage. Second, changing the nature of conflict itself from antagonistic to agonistic is of great importance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state. Extreme political cleavages are common in Korea, because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consider the aggregation of preferences as the most imminent goal in politics. This tendency results in the formation of ‘factions’ and ‘partisans’ in a political society by solely emphasizing ‘representation’ by a few elites. Thus we need to pay serious attention to how to change antagonistic conflicts into agonistic ones. A good recommendation of on that effort is outlined in Machiavelli’s notion of *governo largo*. It entails that the government be based on wider citizenship and greater participation. For him, this is the only way to overcome a political crisis. For us, the idea of *governo largo* will also be the grounds for making the necessary changes mentioned above.

Keywords: Machiavelli, conflict, political participation, republic, people, democracy

Student Number: 2010-20079